

석사학위논문

『용비어천가』의 높임법 연구

지도교수 최 규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임 병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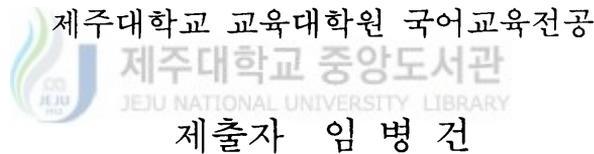
2001년 8월

『용비어천가』의 높임법 연구

지도교수 최 규 일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4월 일



임병건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1년 7월 일

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	①
심사위원	①

『용비어천가』의 높임법 연구

임 병 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최 규 일

문학 작품은 말의 질서에 따라 만들어진다. 『용비어천가』도 중세 국어의 언어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높임법으로 보면 당시 집권층의 의식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높임법에 따라 작품을 분석하여 높임 의식을 밝히는 데 목표를 두었다.

『용비어천가』를 제작한 목적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조선의 육조(六祖)와 유사한 경우를 중국 역사 속에서 찾아 제시하였다. 형식적인 면에서 전절(前節)은 대체로 중국 사적을 노래하였고 후절(後節)은 조선 창업 사적을 노래하고 있다. 작품은 한글 시가 부분·한시 부분·주해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시 부분과 주해 부분은 한글 시가 부분을 분석하는 데 참고로만 사용했으며 실제로 분석 대상이 된 것은 한글 시가 부분이다.

일상 생활에서 담화는 말하는 이·말하는 내용·말 듣는 이가 있어야 한다. 이를 문학적 담화로 전환시키면, 말하는 이는 작가[권재·정인지·안지 등]로·말하는 내용은 작품[『용비어천가』 전체 125장]으로·말 듣는 이는 독자[조선의 후세왕]로 대치시킬 수 있다.

중세 국어 문법에는 주체높임법·객체높임법·상대높임법이 있다. 주체높임법은 문장의 주체가 높임 대상이며, 객체높임법은 문장의 객체가 높임 대상이다. 상대높임법은 말 듣는 이가 높임 대상이다. 주체높임법과 객체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문장 속의 대상을 높이는 방식이다. 반면에 상대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말 듣는 이를 높이는 방식이다.

II장에서는 높임법에 따라 『용비어천가』 전체 125장을 분석하였다. 주체높임법은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와 '겨시다'를 사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높임 대상을 밝혔으며, 객체높임법은 객체높임 선어말어미 '-습-'·'-습-'·'-줍-'과 '습다'·'외시다'를 사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높임 대상을 밝혔다. 또한 상대높임법은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이-'와 높임명령형 종결어미 '-쇼셔'를 사용하여 높임 대상을 밝혔다. 이렇게 분석된 높임 대상·높임 횟수·나타나는 장 순으로 분류하였다.

III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높임 의식을 밝혔다. 주체높임법으로 보면 높임 대상은 크게 다섯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이 논문은 200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첫째, 왕이다. 인물들은 중국 인물로 30명·고려 인물로 4명·조선 인물로 6명이다. 이들은 추존된 왕들을 포함하여 전부 왕의 신분이다. 기본적으로 왕을 높임 것은 말하는 이가 신하의 목소리로 서술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실제의 왕이었던 인물을 높이지 않은 경우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 왕업을 실질적으로 열었던 태조와 태종은 각각 주인공과 부주인공의 관계가 아니라 둘이 한 조가 된 주인공이다. 작품 내용에서 이들을 카리스마 유형의 지도자로 만들어 정치의 사회적 타당성을 얻고자 하였다.

둘째, 왕비다. 왕의 신분이 아니면서 높임 대상이 된 인물이다. 이는 왕비를 왕과 동등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조선 왕조를 이어갈 인물인 후세왕을 높였다. 조선 육조가 새로운 왕업을 열었지만 이것을 영원히 이어갈 인물이기도 하며, 이 작품의 독자이기도 하다.

넷째, 조선 왕조다. 조선 왕조를 높임 대상으로 삼은 의도는 새 왕조에 권위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다섯째, 하늘이다. 하늘이 높임 대상이 된 것은 천명(天命) 사상 때문이다. 조선이 중국의 천자(天子)처럼 천명을 받았다는 것은 중국과 대등하다는 자주적인 역사 의식이다.

객체높임법에서 보면, 주체와 객체가 다른 인물인 경우 높임 순서를 알 수 있다. 조선 태조와 조선 태종인 경우는 주체와 객체를 둘 다 높였다. 이는 조선 건국 과정에 참여한 이들을 같은 지위 인물로 인식한 결과다.

상대높임법에서는 종결어미에 따라 분류하여 ‘~니’와 ‘~리’로 끝나는 경우 ‘~니’와 ‘~리’ 뒤에 ‘-이-’의 결부체가 생략되었다. 이는 말 듣는 이[독자]가 조선의 후세왕이므로 상대를 높이는 형태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용비어천가』에서 높임 대상은 왕·왕비·후세왕·조선 왕조·하늘임을 밝혔다. 이들이 높임 대상이 된 것은 당시 집권층이 역성혁명(易姓革命)의 정당성을 얻고자 한 의도다. **높임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문학 연구의 기본이다.** 이 연구는 학생들에게 높임법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하므로 중등학교 현장 교육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목 차

<국문 초록>

I. 서론	1
II. 『용비어천가』의 높임법 분석	4
1. 주체높임법	5
1·1.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한 경우	6
1·2. 단어를 사용한 경우	17
2. 객체높임법	18
2·1. 선어말어미 '-습-'·'-습-'·'-줍-'을 사용한 경우	19
2·2. 단어를 사용한 경우	22
3. 상대높임법	23
3·1. 선어말어미 '-이-'를 사용한 경우	23
3·2. 명령형어미 '-소서'를 사용한 경우	25
4. 높임법의 겹침	27
III. 높임의 대상	31
1. 주체높임의 대상	32
2. 객체높임의 대상	43
3. 상대높임의 대상	48
IV. 결론	53
참 고 문 헌	55
◇Abstract	58

표 목 차

<표 1> 주체높임의 대상	33
<표 2> 객체높임의 대상	44
<표 3> 종결어미의 분포 유형	4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 서론

君位를 보비라 홀씨 큰 命을 알외요리라 바룻 우희 金塔이 소스니
자호로 制度 | 날씨 仁政을 맛도리라 하눌 우희 金尺이 느리시니

이 장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의문이 생겼다. 전절(前節)의 고사는 고려 태조의 사적이고 후절(後節)은 조선 태조의 사적이다. 둘 다 꿈속에서 본 일을 서술하였는데 새로운 왕조를 열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금탑(金塔)’과 ‘금척(金尺)’은 상징하는 바가 각각 새로운 왕조를 가리키는데, ‘금탑(金塔)’은 높이지 않고 ‘금척(金尺)’은 높였다. 이러한 의문이 이 연구의 계기가 되었다.

새로 만든 훈민정음을 이용하여 『용비어천가』가 지어졌다. 『용비어천가』는 세종 24년부터 편찬이 시작되어, 세종 27년(1445)에 권체(權體)·정인지(鄭麟趾)·안지(安止) 등이 완성하였다. 세종은 이를 보고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란 이름을 지었다. 그 뒤, 최항(崔恒)·박팽년(朴彭年)·강희안(姜希顔)·신숙주(申叔舟) 등의 집현전 학자들이 2년 동안 주해 작업을 거쳐 세종 29년(1447) 2월에 완성되었고, 같은 해 10월에 출간되었다. 간행된 책 550부를 신하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작품의 일부는 국가적 행사에 사용한 악장으로도 사용되었다.¹⁾

『용비어천가』는 시가와 주해로 되어 있다. 시가는 조선의 목조(穆祖)로부터 태종(太宗)까지 6대에 걸친 창업 사적을 칭송하고 후세왕에게 경계하는 내용을 담은 모두 12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가는 우리말 부분과 한시로 옮긴 부분이 있으며, 주해는 시가 내용을 알 수 있게 역사적 전거를 자료로 제시한 부분으로 한문으로 씌어 있다.

1) 조동일(1986),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p.265.

『용비어천가』를 제작한 의도는 어디에 있었을까?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세력으로서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역성혁명(易姓革命)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조선 왕조 창업에 참여한 인물들과 유사한 경우를 중국 역사 속에서 찾아 제시하는 것이다. 형식적인 면에서 전절과 후절로 되어 있으며, 전절은 대체로 중국 사적을 노래하였고 후절은 조선 창업 사적을 노래하고 있다.²⁾

『용비어천가』에 관한 연구는 크게 어학적인 측면과 문학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허웅(1997)³⁾은 『용비어천가』 전체를 어학적인 면에서 연구하였다. 강신항(1994)⁴⁾은 훈민정음 제작자와 관련지어 『용비어천가』의 선자(選者) 문제를 밝혔으며, 고영화(1997)⁵⁾는 우리말 시가 부분·한시 부분·주해 부분의 텍스트 관계를 밝혔다. 문학적인 면에서 형식 문제는 정병욱(1984)⁶⁾이 그 동안의 업적들을 종합하여 밝혔으며, 『용비어천가』를 영웅 서사시로 보는 문제는 장덕순(1982)⁷⁾이 제기한 이래 성기옥(1982)⁸⁾에 와서 그 서사적 짜임을 밝혔다. 조규익(1990)⁹⁾은 악장(樂章) 문학의 완성형으로 장르적 성격과 주제의식을 밝혔다. Peter H. Lee(1975)¹⁰⁾는 서구의 문학 작품과 비교 문학적인 면에서 작품을 보았으며, 심경호(1992)¹¹⁾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성격으로 이 작품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중세 국어 높임법에 따라 『용비어천가』 전체 125장을 분석하였다. 주체높임법에서는 높임 형태소에 의한 높임 대상을 파악하고 이를 다시 높임 대상에 따라 높인 횟수와 나타나는 장으로 분류하여 높임 의식을 밝히며, 객체높

2) 최혜실(1994), 「<용비어천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상익 외, 집문당, pp.351~353.

3) 허웅(1997), 『용비어천가』, 정음사.

4) 강신항(1994),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5) 고영화(1997), 「용비어천가 텍스트의 구성 원리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6) 정병욱(1984),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7) 장덕순(1982), 「왕조서사시로서의 龍飛御天歌」, 『한국문학연구입문』, 황폐강 편, 지식산업사.

8) 성기옥(1982), 「용비어천가의 서사적 짜임」, 『백영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9) 조규익(1990), 『선초악장문학연구』, 숭실대학교출판부.

10) Peter H. Lee(1975), 『용비어천가의 비평적 해석』, 김성언 역(1998), 태학사.

11) 심경호(1992), 「<용비어천가> 소론」,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백영정병욱선생 10주기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1992), 집문당.

임법에서는 높임 형태소에 의하여 높임 대상을 파악하고 서술어가 미치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 따라 높임 정도를 밝힌다. 또한 상대높임법에서는 높임 형태소에 따라 높임 대상을 파악하고 종결어미에 따라 분류하여 독자 문제와 상대높임 선어말어미의 생략형 문제를 밝힌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먼저 어학적인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높임 대상과 의식을 밝히는 데 목표를 둔다.

우리말의 언어 질서에 따라 『용비어천가』는 만들어졌다. 문학 세계에 허용되는 특수한 질서는 언어 전체에 통용되는 보편적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언어의 틀을 이루는 문법 규칙들에 관한 인식은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토대이다. 중세 국어 높임법은 허용의 학설에 따라 종류를 나누었다.¹²⁾ 높임법은 말하는 이와 대상의 관계에서 성립된다. 주체높임법은 문장의 주체가 높임 대상이며, 객체높임법은 문장의 객체가 높임 대상이다. 상대높임법은 말 듣는 이가 높임 대상이다. 주체높임법과 객체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문장 속의 대상을 높이는 방식이다. 반면에 상대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말 듣는 이를 높이는 방식이다. 주체높임법은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거나 특정 어휘인 '겨시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체를 높인다. 객체높임법은 객체높임 선어말어미 '-습-'·'-습-'·'-줍-'을 사용하거나 특정 어휘 '숯다'와 '피시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객체를 높인다. 또한 상대높임법은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이-'를 사용하거나 상대높임 명령형어미 '-소서'를 사용하여 상대를 높인다. 이러한 중세 국어 높임법은 작품 전체를 분석하는 방법의 기초로 삼는다.

12) 허용(1984), 「15세기 국어의 존대법과 그 변천」, 『국어경어법연구』, 김종훈 편, 집문당, pp.159~216.

Ⅱ. 『용비어천가』의 높임법 분석

담화¹³⁾는 말하는 이[화자(話者)]가 말 듣는 이[청자(聽者)]에게 어떤 인물이나 사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담화에는 문장 밖에 말하는 이와 말 듣는 이가 있고, 문장 안에 주체와 객체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간의 존귀도에 따라 여러 가지 높임법이 생긴다. 높임법은 상하관계가 중시되던 사회 구조의 영향으로 우리말은 높임법이 발달한 언어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⁴⁾

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주체·객체·말 듣는 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태도를 나타내는 주된 문장의 성분은 주어, 객어(客語), 서술어다. 객어란 서술어가 미치는 대상으로 주로 목적어와 부사어로 나타난다. 말하는 이와 이러한 문장 성분에 따라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높임법이 나타난다.

주체높임법은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한다는 면에서 현대 국어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객체높임법은 현대 국어에서는 '모시다', '드리다' 등 특정 동사를 사용하여 높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중세 국어와는 다른 편이다. 중세 국어에도 특정 동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주로 객체높임 선어말어미 '-습-'·'-습-'·'-줍-'을 사용하여 높임의 방법을 취하였다는 면에서 현대 국어와 다르다. 상대 높임법도 현대 국어에서는 주로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중세 국어와 구별된다. 중세 국어에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이-'를 사용하여 말 듣는 이를 높였다.

13) '담화(discourse)'와 '텍스트(text)'는 주로 그 쓰임이 음성 언어[구어(口語)]에서는 '담화', 문자 언어[문어(文語)]에는 '텍스트' 개념으로 쓰인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쓰기로 한다.

14) 현대 국어의 높임법은 수직적인 축[상하관계]에서 수평적인 축[친소관계]로 변화해가는 경향이 있다.

1. 주체높임법

주체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문장에서 주체를 높이는 경우이다.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그 문장이 기술하는 행위·상태·존재의 주체를 말하는 이가 높이는 것이다. 이는 서술용언에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거나¹⁵⁾ 특정 어휘 '겨시다'를 사용하여¹⁶⁾ 문장의 주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높이는 데 다음의 예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가) 우리 始祖 | 慶興에 사르샤 王業을 여르시니(제3장)

(나) 赤島 안했 움홀 至今에 보습느니 王業艱難이 이러흐시니(제5장)

(다) 北道에 보내어시놀 글발로 말이스본들 가삼 겨샤매 오늘 다르리잇
가(제26장)

(가)는 '사르샤'와 '여르시니'의 주체인 '始祖'[조선 태조]를 직접 높인 경우이다. (나)는 '이러흐시니'의 주어인 '王業艱難'을 높이는 형태이다. '王業艱難' 자체는 높임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조선 익조(翼祖)가 한 일이기 때문에 높였다. 이런 경우는 간접 높임에 해당한다. 간접 높임인 경우에는 높임 대상과 관련된 것을 높인다. (다)는 특정 어휘 '겨시다'를 사용하여 조선 환조(桓祖)를 높인 경우이다.

『용비어천가』 전체 125장을 중세 국어 주체높임법에 따라 높임 대상을 분석 고찰하기로 한다.¹⁷⁾

15) 허웅(1977), 앞의 책, pp.5~7.

16) 고영근(1997),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p.267.

17) 이 연구에서 분석한 『용비어천가』는 대제학(1973)에서 광해군 4년에 중간한 『용비어천가』를 영인한 본을 사용하였으며, 한글로 된 시가 중에서 방점(傍點)과 권점(圈點)은 생략하였다.

1·1.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한 경우¹⁸⁾

1. 海東 六龍이 느르샤 일마다 天福이시니 古聖이 回符하시니
[조선의 육조(六祖), 3]¹⁹⁾
3. 周國 大王이 關谷애 사르샤 帝業을 여르시니
[주(周) 고공단보(古公亶父), 2]
우리 始祖 | 慶興에 사르샤 王業을 여르시니 [조선 태조(太祖), 2]
4. 狄人스 서리에 가샤 狄人이 굴외어늘 岐山 올므삼도 하눔 쁘디시니
[주 고공단보, 3]
野人스 서리에 가샤 野人이 굴외어늘 德源 올므삼도 하눔 쁘디시니
[조선 익조, 3]
5. 漆沮 7생 음흘 後聖이 니르시니 帝業憂勤이 더러하시니
[주 주공(周公), 2]
王業艱難이 이러하시니 [조선 익조, 1]
6. 商德이 衰허거든 天下를 맛드시릴씩
麗運이 衰허거든 나라를 맛드시릴씩 [하늘, 2]
7. 嘉祥이 문제시니 [조선 태조, 1]
8. 太子를 하눌히 굴희샤 兄기 쁘디 일어시늘
世子를 하눌히 굴희샤 帝命이 느리어시늘 [하늘, 4]
9. 奉天討罪실씩 四方諸侯 | 몬더니 聖化 | 오라샤 [주 무왕, 2]
唱義班師 | 실씩 千里人民이 몬더니 聖化 | 기프샤 [조선 태조, 2]

18) 앞에 쓴 번호는 『용비어천가』 장을 표시하며 밑줄 친 부분의 높임 대상은 괄호 속에 밝혔다. 또한 높임 대상 뒤의 숫자는 형태소에 따른 높임 횟수를 표시한다.

19) 조선의 육조(六祖)는 조선의 목조(穆祖)·익조(翼祖)·도조(度祖)·환조(桓祖)·태조(太祖)를 가리킨다.

11. 至德이 실썌 獨夫受르 섬기시니 [주 문왕(文王), 2]
威化振旅호시느로 輿望이 다 몬즈불나 至忠이 실썌 中興主를 세시니
 [조선 태조, 3]
12. 先考호 뜯 몬 일우시니 [주 무왕, 1]
平生호 뜯 몬 일우시니 [조선 태조, 1]
13. 天命을 疑心호실썌 [주 무왕, 1]
우므로 뵈아시니 [하늘, 1]
天命을 모르실썌 [조선 태조, 1]
우므로 알외시니 [하늘, 1]
14. 聖孫이 一怒호시니 [주 무왕, 1]
聖子호 三讓이시나 [조선 태조, 1]
15. 揚子江南을 썌리샤 使者를 보내신돌 [진(秦) 시황(始皇), 2]
公州 | 江南을 적호샤 子孫을 그르치신돌 [고려(高麗) 태조(太祖), 2]
16. 올모려 님금 오시며 [고려 숙종(肅宗), 1]
17. 宮女로 놀라샤미 [당(唐) 고조(高祖), 1]
官妓로 怒호샤미 [조선 목조, 1]
18. 驪山 役徒를 일호샤 지브로 도라오^ㅅ썌 [한(漢) 고조(高祖), 2]
제 열회 므스물 하늘히 달애시니 [하늘, 1]
셔뵈 使者를 썌리샤 바르를 건너^ㅅ썌 제 [조선 목조, 2]
19. 구든 城을 모르샤 값 길히 입더시니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2]
센 하나비를 하늘히 브리시니 [하늘, 1]
외 한 도즈^ㅅ 모르샤 보리라 기드^ㄹ리시니 [조선 익조, 2]
센 할미를 하늘히 보내시니 [하늘, 1]
20. 四海를 년글 주리여 그르^ㄹ매 비 엮거늘 일우시고 또 노기시니
三韓을 느물 주리여 바르래 비 엮거늘 녀토시고 또 기피시니 [하늘, 4]
21. 하늘히 일위시니

- 하늘히 굴희이시니 [하늘, 2]
22. 赤帝 너러나시릴썌 [한 고조, 1]
 黑龍이 혼 사래 주거 白龍을 살아내시니 [조선 도조, 1]
24. 느믄 뜯 다르거늘 넘그물 救히시고 六舍애도 精卒을 자보시니
 [송(宋) 태조(太祖), 2]
 얏은 뜯 다르거늘 나라해 도라오시고 雙城에도 逆徒를 썌히시니
 [조선 환조, 2]
25. 德望이 더러히실썌 [송 태조, 1]
 忠誠이 이러히실썌 [조선 환조, 1]
26. 東都애 보내어시닐 [당 고조, 1]
 北道애 보내어시닐 [고려 공민왕(恭愍王), 1]
 가샴 겨샤매 오늘 다르리잇가 [조선 환조, 1]
27. 큰 화리 常例 아니샤 [당 태종, 1]
 큰 사리 常例 아니샤 보시고 [조선 태조, 1]
더디시나 命世才를 卽日에 깃그시니 [조선 환조, 3]
28. 員의 지비 가샤 [한 고조, 1]
 아바없 뒤헤 셔샤 [조선 태조, 1]
29. 漢德이 비록 衰흐나 帝胄 | 中興히시릴썌 [촉한(蜀漢) 소열제 비, 1]
 世亂을 救호려 나샤 天姿 | 奇偉히실썌 [조선 태조, 2]
30. 하늘히 볼기시니
 하늘히 구티시니 [하늘, 2]
31. 三十年 天子 | 어시니 [당 태종, 1]
 數萬里△ 니미어시니 [조선 태종, 1]
32. 天爲建國 흐샤 天命을 느리오시니 [하늘, 2]
 亭上牌額을 세사를 마치시니 [송(宋) 고종(高宗), 1]
天爲拯民 흐샤 天才를 느리오시니 [하늘, 2]

- 戴中 담뱃를 스물살 마치시니 [조선 태조, 1]
33. 님그미 올어시놀 [수(隋) 양제(煬帝), 1]
赴援設疑 호샤 [당 태종, 1]
 님그미 避커시놀 [고려 공민왕, 1]
先登獻捷 호샤 [조선 태조, 1]
 님금 도라오시니 [고려 공민왕, 1]
34. 물 깊고 비 업건마른 하늘히 숨호실씩
 城 높고 드리 업건마른 하늘히 도봉실씩 [하늘, 2]
35. 셔불 귀버를 알씩 호봉샤 나아가샤 [당태종, 1]
 스₃불 軍馬를 이길씩 호봉샤 물리조치샤 [조선 태조, 1]
36. 衆賊이 좃거늘 재 느려 티샤 [당 태종, 1]
 只를 채터 뵈시니 三賊이 좃줍거늘 길버서 쏘샤 [조선 태조, 2]
37. 한 부니 天命이실씩 [축한 소열제 비, 1]
 써딘 只를 하늘히 내시니 [하늘, 1]
 나라해 忠臣이 업고 호봉샤 至誠이실씩 [조선 태조, 1]
 여러인 흘굴 하늘히 구티시니 [하늘, 1]
38. 四征無敵 호샤 오샤샤 사르시릴씩 東이 니거시든
 [상(商) 탕왕(湯王), 4]
用兵如神 호샤 가샤샤 이기시릴씩 西에 오나시든 [조선 태조, 4]
39. 行幸으로 마그시니 님금 므슴미 귀 아니 어리시니
 [진(秦) 시황(始皇), 2]
 아모 爲호다 호시니 님금 말쌈미 귀 아니 올호시니 [고려 공민왕, 2]
40. 城 아래 닐흔 살 쏘샤 닐흐니 모미 맛거늘 京觀을 땡그르시니
 [당 고조, 2]
 城 우희 닐흔 살 쏘샤 닐흐니 느치 맛거늘 凱歌로 도라오시니
 [조선 태조, 2]

41. 東征에 功이 몹 이나 所掠을 다 노흐샤 [당 태종, 1]
 西征에 功이 일어늘 所獲을 다 도로 주샤 [조선 태조, 1]
42. 西幸이 흐마 오라샤 角端이 말흐야늘 衛士를 從흐시니
 [원(元) 태조(太祖), 2]
 東寧을 흐마 아스샤 구루미 비취여늘 日官을 從흐시니 [조선 태조, 2]
44. 노르셋 바오리실썸 물 우희 니셔 티시니 [당(唐) 선종(宣宗), 2]
 君命엿 바오리어늘 물 겨퓷 엇마르시니 [조선 태조, 1]
45. 가리라 흐리 이시나 長者를 브리시니 [초(楚) 회왕(懷王), 1]
長者 실썸 秦民을 깃기시니 [한 고조, 2]
 활 소리 하건마른 武德을 아르시니 [고려 공민왕, 1]
 武德으로 百姓을 救흐시니 [조선 태조, 1]
46. 賢君을 내요리라 하늘히 駙馬 달애샤
 聖武를 뵈요리라 하늘히 넘금 달애샤 [하늘, 2]
48. 굴허에 므를 디내샤 [금(金) 태조(太祖), 1]
 石壁에 므를 올이샤 도즈굴 다 자브시니 [조선 태조, 2]
49. 넘그미 나갓더시니 [당(唐) 희종(僖宗), 1]
 諸將之功애 獨眼이 노프시니 [후당(後唐) 태조(太祖), 1]
넘그미 나가려 흐샤 [고려 우왕(禑王), 1]
 二將之功을 一人이 일우시니 [조선 태조, 1]
50. 내 넘금 그리샤 後宮에 드르썸 제 [당 현종, 2]
 내 百姓 어엿비 너지샤 長湍을 건너썸 제 [조선 태조, 2]
51. 軍容이 네와 다르샤 [원 태조, 1]
 置陣이 늬과 다르샤 [조선 태조, 1]
52. 請 드른 다대와 노니샤 바늘 아니 마치시면
 [후당(後唐) 헌조(獻祖), 2]
 請으로 온 예와 싸호샤 투구 아니 밧기시면 [조선 태조, 2]

53. 四海를 平定하시니 [당 태종, 1]
 四境을 開拓하시니 [조선 태조, 1]
54. 禮義를 얏기샤 兵馬를 머추어시니 [한 고조, 2]
 才勇을 얏기샤 金刃을 브려시니 [조선 태조, 2]
56. 聲教 | 너브실썩 [당 태종, 1]
 威惠 너브실썩 [조선 태조, 1]
57. 세 살로 세 셨 쏘시니 [금 태조, 1]
 혼 살로 두 셨 쏘시니 [조선 태조, 1]
58. 가샤 값ᄃᄇ 軍馬 두시고 네 사롬 드리샤 석슬 치자브시니
 [당 태종, 4]
 가샤 山 미ᄃᄇ 軍馬 두시고 온 사롬 드리샤 기르말 밧기시니
 [조선 태조, 4]
60. 出奇無端호실썩 도즈기 알폴 디나샤 [당 태종, 2]
 變化 | 無窮호실썩 도즈기 스일 디나샤 [조선 태조, 2]
61. 호ᄃᄇ샤 뒤헤 셔샤 手射數人호샤 五千賊 이기시니 [당 태종, 3]
 호ᄃᄇ샤 뒤헤 나샤 手斃無筭하샤 百艘賊 자브시니 [조선 태조, 3]
62. 도즈굴 나아가 보샤 일후를 알외시니 聖武 | 어시니 [당 태종, 3]
 도즈기 겨신 덜 무러 일후를 저썩ᄃᄇ니 天威어시니 [조선 태조, 1]
63. 百步ᄃᄇ 물채 쏘샤 群豪를 뵈여시늘 [후당(後唐) 헌조(獻祖), 2]
 百步ᄃᄇ 여름 쏘샤 衆賓을 뵈여시늘 [조선 태조, 2]
64. 叛호는 노몰 부러 노호시니 [금 태조, 1]
이기싫 算을 짐썩 업게 호시니 [조선 태조, 2]
65. 苑囿ᄃᄇ 도를 티샤 長史 듣즈ᄃᄇ 마리 挺世氣象이 엇더호시니
 [당 태종, 2]
 峻阪ᄃᄇ 놀을 쏘샤 麾下 듣즈ᄃᄇ 마리 盖世氣象이 엇더호시니
 [조선 태조, 2]

66. 大義를 볼기실씩 侯國이 오습더니 輕土善罵하샤 [한 고조, 2]
 大勳이 이르시릴씩 人心이 몬줍더니 禮土濫言하샤 [조선 태조, 2]
67. 섬 안해 자심 제 [조선 태조, 1]
68. 가룻 조 아니 말이샤 밀므를 마르시니 하늘히 부러 늑몰 뵈시니
 한비를 아니 그치샤 날므를 외오시니 하늘히 부러 우릴 뵈시니
 [하늘, 6]
69. 城 밖과 브리 비취여 十八子 | 救하시려니 [조선 태조, 1]
70. 天挺英奇하샤 安民을 爲하실씩 [당 태종, 2]
 天錫勇智하샤 靖國을 爲하실씩 [조선 태조, 2]
71. 庸君이신들 天性은 볼르시니 [당(唐) 예종(睿宗), 2]
 聖主 | 실씩 帝命을 아르시니 [명(明) 태조(太祖), 2]
72. 獨夫를 하늘히 니즈샤
 하늘히 獨夫를 브리샤 [하늘, 2]
73. 田租를 고티시니 七姓亂後에 致治를 爲하시니
 [후주(後周) 세종(世宗), 2]
 田制를 고티시니 僞氏黜後에 中興을 爲하시니 [조선 태조, 2]
74. 賢弟를 매 니즈시리 [원(元) 헌종(憲宗), 1]
 忠臣을 매 모르시리 [명 태조, 1]
75. 威靈이 머르실씩 [조선 태조, 1]
76. 宗室에 鴻恩이시며 모던 相을 니즈실씩 [한 고조, 2]
 兄弟에 至情이시며 모던 죄를 니즈실씩 오놈 나래 仁俗을 일우시니
 [조선 태조, 3]
77. 日月之明이실씩 다시 쁘샤 富庶를 보시니 [당 태종, 3]
 天地之量이실씩 다시 사르샤 爵祿을 주시니 [조선 태조, 3]
78. 嚴威로 처엄 보샤 迺終애 殊恩이시니 [한 고조, 2]
 赤心으로 처엄 보샤 迺終내 赤心이시니 [조선 태조, 2]

79. 始終이 다르실썩 [한 고조, 1]
 始終이 그트실썩 [조선 태조, 1]
80. 武功뿐 아니 爲호샤 선비를 아르실썩 [촉한(蜀漢) 소열제 비, 2]
 討賊이 겨를 업스샤디 선비를 드스실썩 [조선 태조, 2]
81. 千金을 아니 앗기샤 글冊을 求호시니 [송 태조, 2]
 聖性을 아니 미드샤 學問이 기프시니 [조선 태조, 2]
82. 허근 선비를 보시고 御座애 니르시니 敬儒之心이 엇더호시니
 [원(元) 세조(世祖), 3]
 늘근 선비를 보시고 禮貌로 우르시니 右文之德이 엇더호시니
 [조선 태조, 3]
83. 하늘 우횿 金尺이 느리시니 [조선 왕조, 1]
84. 님그미 賢커신마룬 太子를 몬 어드실썩 [한(漢) 소제(昭帝), 2]
85. 方面을 몰라 보시고 벼스를 도도시니 [후주(後周) 세종(世宗), 2]
 나라 일홈 그르시니 [명 태조, 1]
86. 여섯 놀이 디며 다섯 가마괴 디고 빗근 남굴 느라 나마시니
 [조선 태조, 1]
87. 물 우횿 대버를 흔 소노로 티시며 싸호는 한쇼를 두 소내 자브시며
 드리예 떠딜 므를 넌즈시 치허시니 [조선 태조, 3]
88. 마손 사스미 둥과 도즈기 입과 눈과 遮陽기 세 쥐 네도 잇더신가
 굿븐 뉘을 모더 놀이시니 聖人 神武이 엇더호시니 [조선 태조, 3]
89. 숲바울 널굽과 이본 나모와 투구 세사리 네도 또 잇더신가
 東門 밧괴 독소리 것그니 聖人 神功이 또 엇더호시니 [조선 태조, 2]
90. 두 兄弟 외 하건마룬 樂이 하늘 계우니 아바님 지호신 [당 고조, 1]
 일홈 엇더호시니 [당 태종, 1]
 두 버디 비 배안마룬 브르미 하늘 계우니 어마님 드르신 말
 [조선 태조, 1]

- 엇더하시니 [조선 태종, 1]
91. 제 어마님 그리신 [당 태종, 1]
 아바님 惣하시니 [당 고조, 1]
 어마님 역희신 늡므를 [조선 태종, 1]
 아바님 일크르시니 [조선 태조, 1]
92. 主君 | 더러하실썩 늡든 즐기는 나를 아니 즐겨 聖經을 니르시니
 [당 태종, 2]
 大君 | 이러하실썩 늡든 밧는 오술 아니 바사 禮經을 從하시니
 [조선 태종, 2]
93. 아바뵈 梓宮을 드스샤 高平에 아니 가시면 [후주 세종, 2]
 어마뵈 山陵을 드스샤 栗村에 도라오시면 [조선 태종, 2]
94. 宗廟 爲하샤 가시니 [송(宋) 고종(高宗), 2]
 네 가사 하리라 키시닐 社稷 爲하야 가시니 [조선 태종, 2]
 忠國之誠을 天子 | 아르시니 [명 태조, 1]
95. 처섬 와 傲色 잇더니 濟世英主 | 실썩 [당 태종, 1]
 간 고대 禮貌 업더니 蓋天英氣 실썩 [조선 태종, 1]
96. 孝道 훈 싼리 그를 어엿비 너겨 보샤 [한(漢) 문제(文帝), 1]
 孝道 훈 아들 우루물 슬피 너겨 드르샤 [조선 태종, 1]
97. 將軍도 하건마른 豁達大略 이실썩 [한 고조, 1]
 宗親도 하건마른 隆準龍顏 이실썩 [조선 태종, 1]
99. 아즈미를 저하샤 讓兄 그 쁘들 내신들 討賊之功 을 놀 미르시리
 [당 현종, 3]
 朝臣을 거스르샤 讓兄 그 뵈 일우신들 [조선 태종, 2]
100. 天下 | 定훈 느지르샷다 [송 태조, 1]
 寶位 특실 느지르샷다 [조선 태종, 2]
101. 天下에 또이 크샤디 太子△ 位 다르거시닐 [당 태종, 2]

- 宗社에 功이 크샤디 世子△ 位 뛰어시늘 [조선 태종, 2]
102. 시름 ㅁ슴 ㅁ스샤디 이 지빅 자려 ㅎ시니 [한 고조, 2]
하늘히 ㅁ스몰 ㅁ우시니 [하늘, 1]
모맷 病 ㅁ스샤디 더 지빅 가려 ㅎ시니 [조선 태종, 2]
하늘히 病을 ㄴ리오시니 [하늘, 1]
103. 앳이 모딜오도 無相猶矣실썩 [요(遼) 태조(太祖), 1]
뉘이 모딜오도 不宿怨焉이실썩 [조선 태종, 1]
104. ㅁ ㅁ르시니 모매 브튼 일로 仁心 ㅁ ㅁ우시니 [당 고조, 2]
ㅁ르시니 社稷功을 혜샤 聖心을 ㅁ우시니 [조선 태종, 3]
105. 不賞私勞ㅎ샤 後世ㄴ ㄱ르치시니 [한 고조, 2]
不忘公義ㅎ샤 嗣王을 ㅁ외시니 [조선 태종, 2]
106. 忠臣을 ㅁ오 주겨늘 惡惡 ㅁ스미 크샤 節鉞을 아니 주시니
[송 태조, 2]
義士를 ㅁ타 ㅁ하샤 好賢 ㅁ스미 크샤 官爵을 아니 ㅁ기시니
[조선 태종, 3]
107. 正臣을 ㅁ타 ㅎ시니 十萬 僧徒를 一舉에 罷ㅎ시니 [당 고조, 2]
聖性에 ㅁ다 ㅁ시니 百千佛刹을 一朝에 革ㅎ시니 [조선 태종, 2]
108. 수메서 ㄷ르시고 [고려(高麗) 태조(太祖)의 비 유씨(柳氏), 1]
病으로 ㅁㅎ시고 [조선 태종의 비 원경왕후(元敬王后), 1]
109. 君子를 ㄱ리샤 金罍ㄴ 브수려 ㅎ시니
[주(周) 문왕(文王)의 후비(后妃), 2]
九泉에 가려 ㅎ시니 [조선 태조의 비 원경왕후, 1]
110. 현 고돌 ㅁ마시뇨 [조선의 사조(四祖), 1]²⁰⁾
九重에 ㄷ르샤 太平을 ㄴ리실 쟈 [조선의 후세왕, 2]
111. 廣廈에 細氈 퍼고 黼座에 ㅁ즈샤 [조선의 후세왕, 1]

20) 조선의 사조(四祖)는 조선의 목조(穆祖)·익조(翼祖)·도조(度祖)·환조(桓祖)를 가리킨다.

112. 王事를 爲커시니 行陣을 조츠샤 不解甲이 현나리신들 알리
[조선 태조, 3]
莽龍衣 袞龍袍애 寶玉帶 씩샤 [조선의 후세왕, 1]
113. 拯民을 爲커시니 攻戰에 돋니샤 不進饈이 현뻘신들 알리
[조선 태조, 3]
南北珍羞와 流霞玉食 바드샤 [조선의 후세왕, 1]
114. 大業을 누리오리라 筋骨을 몬져 긔고샤 [하늘, 1]
玉體創瘢이 흔두 곧 아니시니 [조선 태조, 1]
兵衛 儼然커든 垂拱臨朝 흐샤 [조선 후세왕, 1]
115. 날 거슬 도즈굴 好生之德이실썌 부러 저히샤 살아 자브시니
[조선 태조, 3]
頤指如意 흐샤 罰人刑人 흐실 제 [조선의 후세왕, 2]
116. 道上애 僮尸를 보샤 寢食을 그쳐시니 旻天之心애 기 아니 쁘디시리
[조선 태조, 3]
民瘼을 모르시면 [조선 후세왕, 1]
하늘히 브리시느니 [하늘, 1]
117. 敵王所愾 흐샤 功盖一世 흐시나 勞謙之德이 功을 모르시니
[조선 태조, 3]
佞臣이 善諛 흐야 驕心이 나거시든 [조선의 후세왕, 1]
118. 多助之至 실썌 [조선 태조, 1]
님금 德 일흐시면 [조선의 후세왕, 1]
119. 兄弟變이 이시나 因心則友 | 실썌 허므를 모르더시니 [조선 태종, 2]
120. 力排群議 흐샤 私田을 고티시니 [조선 태조, 2]
121. 제 님금 爲타 흐실썌 罪를 니저 다시 브려시니 [조선 태종, 2]
122. 性與天合 흐샤디 思不如學이라 흐샤 [조선 태조, 2]
123. 讒口 | 만 흐야 罪 흐마 일리러니 功臣을 살아 救 흐시니

[조선 태종, 1]

124. 洙泗正學이 聖性에 불그실씩 異端을 排斥하시니 [조선 태종, 2]

125. 千世 우회 미리 定호산 [하늘, 1]

漢水北에 累仁開國호샤 [조선의 육조(六祖), 1]

卜年이 조업스시니 [조선 왕조, 1]

聖神이 니스샤도 敬天勤民호샤샤 [조선의 후세왕, 2]

1·2. 단어를 사용한 경우

26. 北道에 보내어시놀 글밭로 말이스본들 가삼 겨샤매 [조선 환조, 1]

62. 도즈기 겨신 덜 무러 일후를 저쓰븨니 [조선 태조, 1]

110. 四祖ㅣ 便安히 몬 겨샤 [조선의 사조(四祖), 1]



2. 객체높임법

객체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로 등장하는 객체를 높이는 경우이다.²¹⁾ 객체높임법은 주로 객체높임 선어말어미 ‘-습-’·‘-습-’·‘-줍-’을 사용하거나,²²⁾ 특정 어휘 ‘습다’·‘되시다’를 사용하여²³⁾ 문장의 객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높인다. 주체높임법에서 높임 대상이 문장 속에서 객체로 나타나면 객체높임법이 사용된다. 또한 주체와 객체가 다른 경우에 어떤 선어말어미를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높임 순서를 가릴 수 있다. 다음은 객체높임법이 사용된 예들이다.

(가) 狂夫 | 流毒 홀씨 我后를 기드리스바 玄黃筐籠로 길헤 브라스불니

(제10장)

(나) 赤烏 안헛 움홀 至今에 보습느니 王業艱難이 이러흐시니(제5장)

(다) 말쌈물 습불리 하디 天命을 疑心홀실씨 꾸므로 뵈아시니(제13장)

(라) 므리 사를 마자 馬廐에 드러오나늘 聖宗을 되셔 九泉에 가려 하시니(제109장)

(가)는 ‘기드리스바’와 ‘브라스불니’의 객체인 ‘我后’[조선 태조]를 직접 높인 경우이다. (나)는 ‘보습느니’의 객체인 ‘움’을 높인 경우이다. ‘움’ 자체는 높임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조선 익조(翼祖)가 거쳐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높였다. 이런 경우는 간접 높임에 해당한다. (다)는 특정 어휘 ‘습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주 무왕을 높인 경우이다. (라) 역시 특정 어휘 ‘되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聖宗’[조선 태종]을 높

21) 객체높임법을 주장하는 허웅에 대하여, 주체겸양법으로 보는 것이 이승녕의 주장이다. 후자의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 서적으로 다음과 같다.

이승녕(1978), 『국어학연구』, 형설출판사.

이승녕(1979), 『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

22) 허웅(1997), 앞의 책, pp.47~52.

23) 고영근(1997), 앞의 책, p.267.

인 경우다.

『용비어천가』 전체 125장을 중세 국어 객체높임법에 따라 높임 대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1. 선어말어미 ‘-습-’·‘-습-’·‘-줍-’을 사용한 경우

2·1·1. ‘-습-’을 사용한 경우

29. 大耳兒를 臥龍이 돕스븨니 [촉한(蜀漢) 소열제 비, 1]
41. 仁義之兵을 遼左 | 깃스븨니 [조선 태조, 1]
55. 戰陣을 돕스븨니 [한 고조, 1]
61. 일후를 저쌌바늘 [조선 태조, 1]
62. 도즈기 겨신 덜 무러 일후를 저쌌븨니 天威어시니 [조선 태조, 1]
75. 突厥이 入寇흐나 威名을 저쌌바 [당 태종, 1]
91. 左右 | 슬쌌바 [조선 태종 1]
95. 이바디에 머리를 죇스븨니 [조선 태종, 1]
121. 흐몰며 衰職 돕스보려 [조선의 후세왕, 1]

2·1·2. ‘-습-’을 사용한 경우

5. 赤島 안헛 음홀 至今에 보습느니 [조선 익조, 1]
7. 聖子革命에 帝祐를 뵈스븨니 [주 무왕, 1]
10. 一夫 | 流毒^{홀씨} 我后를 기드리스바 玄黃筐籠로 길헤 브라스븨니
[주 무왕, 2]
狂夫 | 肆虐^{홀씨} 義旗를 기드리스바 簞食壺裝으로 길헤 브라스븨니
[조선 태조, 2]

22. 火德之主을 神婆ㅣ 알외스불니 [한 고조, 1]
23. 絶世 英才를 邊人이 拜伏호스불니 [후당(後唐) 태조(太祖), 1]
曠世 奇事를 北人이 稱頌호스불니 [조선 도조, 1]
25. 도라웁 軍士ㅣ 즈갓과 黃袍 니피스불니 [송 태조, 1]
죽다가 살인 百姓이 아드넛과 袞服 니피스불니 [조선 태조, 1]
26. 하리로 말이스본들 [당 태종, 1]
글발로 말이스본들 [조선 환조, 1]
27. 그초스바 濟世才를 後人이 보스불니 [당 태종, 2]
38. 西夷 브라스불니 [상(商) 탕왕(湯王), 1]
東鄙 브라스불니 [조선 태조, 1]
43. 天縱之才를 그려샤 아스불까 [조선 태조, 1]
44. 九達 都人이 다 놀라스불니 [조선 태조, 1]
47. 大箭 하나래 突厥이 놀라스바니 [당 태종, 1]
片箭 하나래 島夷 놀라스바니 [조선 태조, 1]
51. 軍容이 네와 다르샤 아습고 [원 태조, 1]
置陣이 늬과 다르샤 아스보디 [조선 태조, 1]
55. 逐鹿未擒에 燕人이 向慕호스바 梟騎 보내야 [한 고조, 1]
潛龍 未飛에 北人이 服事호스바 弓劍 츠습고 [조선 태조, 2]
56. 革命호 後에 厚恩 그리스불니 [당 태종, 1]
오늬 나래 至德을 우습느니 [조선 태조, 1]
57. 府中엔 邀使ㅣ 奇才를 과호스불니 [금 태조, 1]
깊 ㅁ샛 百姓이 큰 功을 일우스불니 [조선 태조, 1]
58. 말이습거늘 [당 태종, 1]
59. 東都엿 도즈기 威武를 니기 아스바 二隊玄甲을 보습고 [당 태종, 2]
東海엿 도즈기 智勇을 니기 아스바 [조선 태조, 1]
61. 일후를 놀라스바늘 [당 태종,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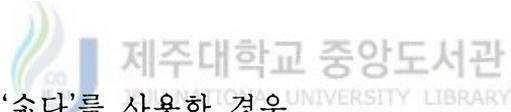
64. 天下 英雄이 度量에 다 드스볼썩 [금 태조, 1]
 世上 豪傑이 範圍에 못 나스볼썩 [조선 태조, 1]
66. 侯國이 오습더니 [한 고조, 1]
71. 元良을 무우리라 垂象으로 하스볼니 [당 현종, 1]
 僞姓을 구튜리라 親朝를 請호스볼니 [명 태조, 1]
74. 天倫을 姦臣이 하스바 [원 헌종, 1]
78. 뒤 아니 스랑호스볼리 [조선 태조, 1]
85. 하늘 므스물 뒤 고티스볼리 [하늘, 1]
 天子△ 므스물 뒤 달애스볼리 [명 태조, 1]
86. 하늘 ㅼ들 뒤 모르스볼리 [하늘, 1]
91. 左右 | 하스바 [당 태종, 1]
97. 書生이 보스바 [조선 태종, 1]
99. 定社之聖人이 뒤 아니 오스볼리 [조선 태종, 1]
100. 물 우횡 龍이 江亭을 向호스볼니 [송 태조, 1]
 집 우횡 龍이 御床을 向호스볼니 [조선 태종, 1]
105. 제 님금 背叛호야 내 모뎨 救호스바늘 [한 고조, 1]
 제 님금 아니 니저 내 命을 거스스바늘 [조선 태종, 1]
124. 裔戎邪說이 罪福을 저히습거든 [조선의 후세왕, 1]

2·1·3. '-줍-'을 사용한 경우

11. 輿望이 다 몬즈볼나 [조선 태조, 1]
27. 큰 화리 常例 아니샤 얘즈바 [당 태종, 1]
29. 大耳相을 詔使 | 일꼰즈볼니 [조선 태조, 1]
36. 三賊이 쫘줍거늘 [조선 태조, 1]
55. 左右에 쫘즈볼니 [조선 태조, 1]

59. 一聲白螺를 듣좁고 [조선 태조 1]
65. 長史 듣좁 마리 [당 태종, 1]
 麾下 듣좁 마리 [조선 태조, 1]
66. 人心이 몹좁더니 禮上濫言하샤 人心이 곶좁니 [조선 태조, 2]
78. 뉘 아니 좃좁고져 흐리 [한 고조 1]
91. 아바님 이받좁 [당 고조, 1]
95. 마짚비에 므스물 놀라니 [당 태종, 1]
97. 狂生이 듣좁 [한 고조, 1]
98. 님굽 말 아니 듣좁 [조선 태조, 1]

2·2. 단어를 사용한 경우



2·2·1. '솥다'를 사용한 경우

13. 말쌈물 솥리 하더 [주 무왕, 1]
22. 子孫之慶을 神物이 솥니 [조선 태조, 1]
72. 功德을 國人도 솥거니 [당 고조, 1]
 功德을 漢人도 솥거니 [조선 태조, 1]
76. 千載 아래 盛德을 솥니 [한 고조, 1]
87. 聖人 神力을 어느 다 솥리 [조선 태조, 1]
118. 國人 ㅼ들 어느 다 솥리 [조선 태조, 1]

2·2·2. '되시다'를 사용한 경우

109. 聖宗을 되서 [조선 태종, 1]

3. 상대높임법

상대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말 듣는 이를 높이는 경우를 말한다.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이-'를 사용하거나 높임명령 종결어미 '-쇼셔'를 사용하여 말 듣는 이를 높인다.²⁴⁾ 이런 예는 다음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 聖孫이 一怒하시니 六百年 天下 | 洛陽애 올므니이다(제14장)

(나) 九重에 드르샤 太平을 누리실 제 이 쁘들 니디 마르쇼셔(제110장)

(가)는 선어말어미 '-이-'를 사용하여 말하는 이가 말 듣는 이인 조선의 후세왕을 높인 경우다.²⁵⁾ (나)는 높임명령형 종결어미 '-쇼셔'를 사용하여 말하는 이가 말 듣는 이인 조선의 후세왕을 높인 경우다.

『용비어천가』 전체 125장을 중세 국어 상대높임법에 따라 높임 대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3·1. 선어말어미 '-이-'를 사용한 경우

3·1·1. 말하는 이[작가]가 조선의 후세왕을 높인 경우

14. 六百年 天下 | 洛陽애 올므니이다

五百年 나라히 漢陽애 올므니이다

15. 七代之王을 뉘 마르리잇가

九變之局이 사름 쁘디리잇가

17. 問罪江都를 느치리잇가

24) 허웅(1997), 앞의 책, pp.67~70.

25) 이 연구 pp.49~52.

26. 이골 더고대 後△ 날 다르리잇가
 오늘 다르리잇가
28. 兩漢故事에 엇더흐니잇고
 二韓今日에 엇더흐니잇고
31. 모딘 씨를 일우리잇가
44. 二軍 鞠手뿐 깃그니이다
47. 어디 머리 威不及흐리잇고
 어니 구더 兵不碎흐리잇고
48. 半길 노편들 년기 디나리잇가
 현 번 뛰어난들 늑미 오르리잇가
50. 하늬 버리 눈 곧 디니이다
 힌 므지게 히예 빼니이다
51. 목숨 기르리잇가
 목숨 므츠리잇가
53. 塞外北狄인들 아니 오리잇가
 徼外南蠻인들 아니 오리잇가
54. 徼外南蠻인들 아니 오리잇가
 塞外北狄인들 아니 오리잇가
62. 聖武 | 어시니 나아오리잇가
 天威어시니 드러오리잇가
63. 陰謀를 니즈니이다
67. 나거사 즈므니이다
 뷔어사 즈므니이다
72. 漢人 므스미 엇더흐리잇고
 國人 므스미 엇더흐리잇고
79. 定鼎無幾에 功이 그츠니이다

傳祚萬世에 功이 그츠리잇가

84. 누본 남기 니러셔니이다

이본 남기 새 뇨 나니이다

98. 山이 草木이 軍馬 | 드뵤니이다

셔뵤 뵤 길혜 軍馬 | 뵤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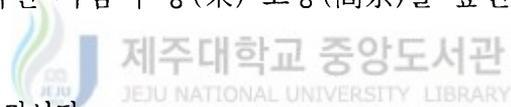
125. 하나빌 미드니잇가

3·1·2. 조선 태조가 고려 우왕을 높인 경우

58. 내 니거지이다

3·1·3. 어떤 사람이 송(宋) 고종(高宗)을 높인 경우

94. 내 가리이다



3·2. 명령형어미 '-쇼셔'를 사용한 경우²⁶⁾

3·2·1. 말하는 이[작가]가 조선의 후세왕을 높인 경우

110. 이 브들 닛디 마르쇼셔

111. 이 브들 닛디 마르쇼셔

112. 이 브들 닛디 마르쇼셔

113. 이 브들 닛디 마르쇼셔

26) 허웅(1983),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p.729에서는 '-쇼셔'를 주체와 상대를 높이는 형태로 보았다.

114. 이 ㅼ들 ㄴ디 마르쇼셔
115. 이 ㅼ들 ㄴ디 마르쇼셔
116. 이 ㅼ들 ㄴ디 마르쇼셔
117. 이 ㅼ들 ㄴ디 마르쇼셔
118. 이 ㅼ들 ㄴ디 마르쇼셔
119. 이 ㅼ들 ㄴ디 마르쇼셔
120. 이 ㅼ들 ㄴ디 마르쇼셔
121. 이 ㅼ들 ㄴ디 마르쇼셔
122. 이 ㅼ들 ㄴ디 마르쇼셔
123. 이 ㅼ들 ㄴ디 마르쇼셔
124. 이 ㅼ들 ㄴ디 마르쇼셔
125. 님금하 아르쇼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3·2·2. 말하는 이[당 고조의 신하들]가 당 고조를 높인 경우

107. 滿朝히 두쇼셔

4. 높임법의 겹침

주체높임·상대높임·객체높임은 그 형태소들이 서로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²⁷⁾ 다음은 그런 예이다.

(가)世子를 하늘히 굴히샤 帝命이 느리어시놀 聖子를 내시니이다

(제8장)

(나)百步애 여름 쏘샤 衆賓을 뵈여시놀 慶爵을 받즈븨니이다(제63장)

(다)아바님 뵈스븨스 제 어마님 여희신 늡므를 左右| 슬쓰바 아바님
일크르시니(제91장)

(가)는 '-시-'를 사용한 주체높임과 '-이-'를 사용한 상대높임이 겹쳐져 있다. 이런 경우에 주체와 말 듣는 이는 동등한 관계가 성립된다. 곧 주체인 '하늘'과 상대인 조선의 후세왕을 같이 높이는 형태이다. (나)는 '-줍-'을 사용한 객체높임과 '-이-'를 사용한 상대높임이 겹쳐져 있다. 이런 경우에 객체와 상대는 동등한 관계가 성립된다. 곧 객체인 조선 태조와 상대인 조선의 후세왕을 같이 높이는 형태이다. (다)는 '-시-'를 사용한 주체높임과 '-습-'을 사용한 객체높임이 겹쳐져 있다. 이런 경우에 주체와 객체는 동등한 관계가 성립된다. 곧 주체인 조선 태종과 객체인 조선 태조를 같이 높이는 형태이다.

4·1. 주체높임과 상대높임이 겹친 경우

8. 聖孫을 내시니이다

聖子를 내시니이다 [하늘·조선의 후세왕, 2]

17. 肇基朔方을 뵈아시니이다 [하늘·조선의 후세왕, 1]

27) 허웅(1983), 위의 책, pp.728~730.

21. 天下蒼生을 니즈시리잇가
海東黎民을 니즈시리잇가 [하늘 · 조선의 후세왕, 2]
31. 百仞虛空애 느리시리잇가 [조선 태종 · 조선의 후세왕, 1]
34. 물론 자히 건너시니이다 [금 태조 · 조선의 후세왕, 1]
물론 자히 느리시니이다 [조선 태조 · 조선의 후세왕, 1]
35. 모던 도즈굴 물리시니이다 [당 태종 · 조선의 후세왕, 1]
모던 도즈굴 자브시니이다 [조선 태조 · 조선의 후세왕, 1]
43. 希世之事를 그려 보시니이다 [당 현종 · 조선의 후세왕, 1]
46. 하늘히 駙馬 달애샤 두 孔雀일 그리시니이다
하늘히 님금 달애샤 열 銀鏡을 노흐시니이다 [하늘 · 조선의 후세왕, 2]
52. 어비 아드리 사르시리잇가 [후당 헌조와 태조 · 조선의 후세왕, 1]
나랏 小民을 사르시리잇가 [조선 태조 · 조선의 후세왕, 1]
69. 오라 혼들 오시리잇가 [후한 광무제 · 조선의 후세왕, 1]
가라 혼들 가시리잇가 [조선 태조 · 조선의 후세왕, 1]
80. 鼎峙之業을 세시니이다 [촉한 소열제 비 · 조선의 후세왕, 1]
太平之業이 빛나시니이다 [조선 태조 · 조선의 후세왕, 1]
81. 經世度量이 크시니이다 [송 태조 · 조선의 후세왕, 1]
創業規模 | 머르시니이다 [조선 태조 · 조선의 후세왕, 1]
93. 配天之業이 구드시리잇가 [후주 세종 · 조선의 후세왕, 1]
建國之功을 일우시리잇가 [조선 태종 · 조선의 후세왕, 1]
96. 漢家仁風을 일우시니이다 [한 문제 · 조선의 후세왕, 1]
聖祖仁政을 도보시니이다 [조선 태종 · 조선의 후세왕, 1]
103. 二百年 基業을 여르시니이다 [요 태조 · 조선의 후세왕, 1]
千萬世 厚俗을 일우시니이다 [조선 태종 · 조선의 후세왕, 1]
108. 戎衣를 니피시니이다 [고려 태조의 비 유씨 · 조선의 후세왕, 1]
兵仗으로 도보시니이다 [조선 태종의 비 원경왕후 · 조선의 후세왕, 1]

- 110. 몇 間디 지비 사르시리잇고 [조선의 사조·조선의 후세왕, 1]
- 111. 움 무더 사르시니이다 [조선 익조·조선의 후세왕, 1]
- 122. 儒生을 親近히시니이다 [조선 태조·조선의 후세왕, 1]
- 125. 더욱 구드시리이다 [조선 왕조·조선의 후세왕, 1]

4·2. 객체높임과 상대높임이 겹친 경우

- 63. 慶爵을 받즈볼니이다 [조선 태조·조선의 후세왕, 1]

4·3. 주체높임과 객체높임이 겹친 경우

- 91. 아바님 뵈스볼쌌 [조선 태조·조선 태종, 1]



높임법을 구성하는 높임 선어말어미와 특정 어휘는 각각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가 높임 의식이다. 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대상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므로 특정 대상이라도 반드시 높이는 것은 아니다.

이상의 분석에서 높임 대상을 파악하려면 주해 부분을 보아야 한다. 시가 자체 만으로는 주체와 객체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주체높임과 객체높임은 문장 속에서 위치에 따른 높임법이며, 상대높임은 말하는 이가 말 듣는 이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러한 높임법의 겹침은 두 대상을 동등하게 보고자 한 표현이다. 하나의 높임 형태에는 그에 맞는 하나의 높임 대상이 있으며 높임법의 겹침은 그에 맞게 높임 대상이 복수로 있다는 것이 성립된다.

다음은 중세 국어에서 보이는 세 가지 높임법이 겹쳐서 나타난 경우다. 이런 경우는 높임 대상이 셋이 된다. “摩耶夫人이…엇던 因緣으로 如來랄 나쓰볼시니 잇고 (석보상절 11 : 24)”²⁸⁾ 에서 밑줄 친 부분을 형태소 분석하면 ‘냥(어간)+습

28) 허용(1983), 위의 책, p.730에서 재인용.

(객체높임 선어말어미)+으(매개모음)+시(주체높임 선어말어미)+니(과거시제 선어말어미)+이(상대높임 선어말어미)+스고(의문형 종결어미)’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시-’는 주체인 마야부인(摩耶夫人)를 높이는 것이며, ‘-습-’은 객체인 여래(如來)를 높이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글을 읽는 독자를 높이는 것이다. 이런 경우 마야부인(摩耶夫人)·여래(如來)·독자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높임 의식이 높임 대상 사이에 높임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Ⅲ. 높임의 대상

높임법이란 대상에 관한 높임과 낮춤을 아울러 포괄한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대상을 높이는 것이며, 대상을 높인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상을 높이느냐 낮추느냐는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비뉘게서 오신다.'라는 문장은 일반적으로 틀린 것이다. 그러나 가뭄 끝에 오는 비가 너무나 반가워하는 사람은 비를 높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담화의 관점에서 문장이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를 가릴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주관적인 높임법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우선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말하는 이에게 여러 가지 인물들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높일 대상을 순서대로 나열하도록 하면 그 순서에 따라 높임 순서가 정해질 것이다. 말하는 이의 선택은 주관적이지만 순서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높임 정도는 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높임법은 말하는 이의 의향이 중요하다. 말하는 이가 문장 속의 주체·객체·말 듣는 이를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달린 문제이다. 그러므로 문장 속의 주체와 객체의 관계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일상 생활에서 담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말하는 이·말하는 내용·말 듣는 이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말하는 내용, 곧 하나의 문장만을 고려할 때는 그 의미를 잘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장이 쓰이게 된 장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하나의 문장을 놓고 말하는 이와 말 듣는 이의 상호 관계에서만 정확한 의미가 성립된다는 뜻이다. 이를 문학적 담화로 전환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말하는 이는 작가인 권제·정인지·안지 등이며, 문장에 해당하는 것은 문학 작품으로 『용비어천가』 전체 125장이며, 말 듣는 이는 독자인 조선의 후세왕이다.

1. 주체높임의 대상

일반적으로 주체높임법이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말하는 이다. 그러나 말하는 이를 포함하여 문장의 주체와 말 듣는 이를 고려하여 높이거나 낮거나 한다. 앞에서 분석한 높임 대상으로 볼 때, 높임 대상이 된 주체와 말 듣는 이를 높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하는 이는 이들보다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품의 작자들은 담화에서 말하는 이에 해당한다. 물론 작자와 문학 작품 속에서 말하는 이는 다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는 『용비어천가』 작가로 기록된 권제·정인지·안지의 개인적인 목소리는 아니다. 아울러 그들은 왕을 높임 대상으로 여기는 것으로 볼 때, 왕보다는 낮은 신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화자는 인간이 아니라 마치 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전지적 권한은 독자에게 사건을 잘 이해시키고 인식시키기 위해 작중 인물, 환경 및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작품 서술에서 개인적인 목소리가 아닌 객관적인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은 작품을 믿게 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²⁹⁾

조선 초기에 많은 사서와 문학 작품들은 주로 관청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용비어천가』를 포함한 이 당시 서적들은 공동 저술의 형식을 띠고 있다. 여기에 참여한 이들은 당시 정치를 주도하던 관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집권층의 역사 인식이 가장 잘 반영되었다.³⁰⁾ 그러므로 개인의 목소리보다는 그 시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주체높임의 대상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29) 이재인 외(1997), 『현대 소설의 이해』, 문학사상사, pp.170~171.

30) 한영우(1984), 『조선전기사학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p.15.

<표 1> 주체높임의 대상

왕조	인물	횟수	나타나는 장
상	탕왕	4	38
주	고공단보	5	3, 4
	문왕	2	11
	문왕의 후비	2	109
	무왕	5	9, 12, 13, 14
	주공	2	5
진	시황	4	15, 39
초	회왕	1	45
한	고조	20	18, 22, 28, 45, 54, 66, 76, 78, 79, 97, 102, 105
	문제	2	96
	소제(昭帝)	2	84
후한	광무제	3	19, 69
촉한	소열제 비	5	29, 37, 80
수	양제	1	33
당	고조	10	17, 26, 40, 90, 91, 104, 107
	태종	35	27, 31, 33, 35, 36, 41, 53, 56, 58, 60, 61, 62, 65, 70, 77, 90, 91, 92, 95, 101
	예종	2	71
	현종	6	43, 50, 99
	선종	2	44
	희종	1	49
후당	태조	1	49
	태조와 현조	1	52
	현조	4	52, 63
후주	세종	7	73, 85, 93
요	태조	2	103
송	태조	9	24, 25, 81, 100, 106
	고종	3	32, 94
금	태조	4	34, 48, 57, 64
원	태조	3	42, 51
	현종	1	74

왕조	인물	횟수	나타나는 장
원	세조	3	82
명	태조	5	71, 74, 85, 94
고려	태조	2	15
	태조의 비	2	108
	숙종	1	16
	공민왕	6	26, 33, 39, 45
	우왕	1	49
조선	육조(六祖)	4	1, 125
	사조(四祖)	3	110
	목조	3	17, 18
	익조	7	4, 5, 19, 111
	도조	1	22
	환조	8	24, 25, 26, 27
	태조	126	3, 7, 9, 11, 12, 13, 14, 27, 28, 29, 32, 33, 34, 35, 36, 37, 38, 40, 41, 42, 44, 45, 48, 49, 50, 51, 52, 53, 54, 56, 57, 58, 60, 61, 62, 63, 64, 65, 66, 67, 69, 70, 73, 75, 76, 77, 78, 79, 80, 81, 82, 86, 87, 88, 89, 90, 9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20, 122
	태종	47	31, 90, 91, 92, 93, 94, 95, 96, 97,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19, 121, 123, 124
	태종의 비	3	108, 109
	후세왕	14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25
기타	조선 왕조	3	83, 125
	하늘	49	6, 8, 13, 17, 18, 19, 20, 21, 30, 32, 34, 37, 46, 68, 72, 102, 114, 116, 125

<표 1>에서 보면 주체를 높이는 형태소에 따른 높임 횟수는 437회에 이른다. 이를 유형별로 묶어보면 왕·왕비·조선의 후세왕·조선 왕조·하늘이다. 주체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문장 속의 주체를 자기보다 높은 존재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높임 대상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 집권층의 역사 의식을 알 수 있다.

1·1. 왕

『용비어천가』에는 중국 인물로 30명·고려 인물로 4명·조선 인물로 6명의 왕이 등장하고 있다. 추존된 왕³¹⁾을 포함하여 40명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전부 왕의 신분이다. 기본적으로 높임 대상으로 왕을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왕업을 실질적으로 열었던 조선 태조와 조선 태종은 중국 인물군에서 당 고조와 당 태종에 견줄 수 있다. 아버지를 도와 새 왕조를 건설하고 나중에 왕이 된다는 고사의 유사성과 높임 횟수로 볼 때에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중국 인물군에서 당 고조와 당 태종을 높인 경우는 합하여 45번이다. 이는 왕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에 어느 조합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통계다. 천명(天命) 사상으로 새 왕조를 건설했다는 주나라 건국 이야기가 명목상의 틀이라고 한다면³²⁾, 역사 속의 실질적인 틀은 당나라 건국 이야기다. 이를 모범으로 조선 왕조의 건국을 정당화했다고 할 수 있다.

작품 속에서는 조선 태조를 무용(武勇)의 인물로·선사(善射)의 인물로·승마(乘馬)의 명수로·백전백승(百戰百勝)의 용장으로·격구(擊毬)의 명수로·정치적 수완의 인물로·겸양의 인간으로·기적과 천조(天助)를 갖춘 영웅으로 보았다. 또한 조선 태종을 천명에 의한 탄생의 인물로·효도를 잘한 인물로·우의 있는 인물로·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보았다. 그러나 조선 태조가 등

31) 천자국(天子國)에서는 7대까지 추존하며, 제후국(諸侯國)에서는 4대까지 추존한다.

32) 정병욱(1984), 앞의 책, p.151.

장하는 장이 모두 81장이고 조선 태종이 등장하는 장이 모두 22장이다. 이러한 횡수의 차이로 주인공은 조선 태조이고 부주인공은 조선 태종으로 보기도 한다.³³⁾ 그러나 제91장에서 보는 것처럼 조선 태조와 조선 태종은 동등한 높임의 대상이다.³⁴⁾ 그러므로 등장하는 장의 횡수로 주인공과 부주인공으로 나누기보다는 조선 태조와 태종을 한 묶음으로 하는 공동 주인공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조선 태조와 조선 태종은 실질적으로 왕업을 연 주체이기 때문이다.

개국의 정당성을 밝히는 것은 정치권력의 사회적 타당성을 지닐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문제다. 정치권력의 사회적 타당성에 관하여 막스 베버는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전부터 답습되어 온 일상적 신념에 의거한 전통형, 둘째는 법칙화된 질서의 합법성 및 질서에 의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권한이 부여된 합법형, 셋째는 카리스마형이다. 새로운 왕조 건설에는 카리스마적 인물이 나타난다. 그는 초인간적인 힘을 지니며, 또한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비일상적인 면과 그에 의하여 제정된 질서는 신성성을 지닌다. 따라서 카리스마형은 어떤 특정한 인물의 신성성·비범성·영웅성·초인간성 등에 대한 열렬한 신뢰에 기인하는 지배유형이다.³⁵⁾

인물이 영웅의 품성을 지녔다는 것을 증명하여 그것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자가 생기면 피지배자에 의한 자연스런 승인이 이루어진다. 『용비어천가』는 바로 이런 목적을 지니고 만들어진 문학 작품이다. 곧 조선 태조와 조선 태종을 전형적인 카리스마 유형의 지도자로 만들었으며 기타 사조(四祖)³⁶⁾의 경우도 횡수 문제이지 크게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왕은 높임 대상이다. 그러나 왕이지만 높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다.

33) 장덕순(1982), 「왕조서사시로서의 龍飛御大歌」,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pp.374~381.

34) 이 연구 p.47 참조.

35) 이극찬(1991), 『정치학』, 법문사, pp.320~328.

36) 조선의 목조(穆祖)·익조(翼祖)·도조(度祖)·환조(桓祖)를 가리킨다.

[제10장]

一夫 | 流毒홀씨 我后를 기드리스바 玄黃筐篋로 길헤 브라스불니

狂夫 | 肆虐홀씨 義旗를 기드리스바 簞食壺裝으로 길헤 브라스불니

위에서 전절의 ‘一夫’는 중국 역사에서는 상(商)나라 주왕(紂王)을 가리킨다. 그러나 왕의 신분이지만 ‘一夫’[한 지아비]로 격을 낮추어 표현하고 높이지도 않았다. 이는 왕이 아니라 일반 백성이라는 뜻이다. 후절의 ‘狂夫’는 고려 우왕(禑王)을 가리킨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狂夫’[미친 지아비]로 더 격을 낮추어 표현하였다. 제49장에서 ‘님금’으로 나오는 고려 우왕은 높였다. 또한 제58장에서 말하는 이[조선 태조]는 말 듣는 이[고려 우왕]를 높였다. 그러나 같은 고사의 주인공인 고려 우왕을 위에서 보는 것처럼 높이지 않았다. 높이지 않으려고 했을 때는 낱말을 바꾸어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³⁷⁾ 왜 같은 인물을 높이기도 하고 높이지 않기도 하였는지는 제1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 장의 고사는 위화도 회군을 다룬 것이다. 당시 집권층은 위화도에서 회군한 명분을 살리기 위하여 고려 우왕을 의도적으로 ‘광부(狂夫)’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1·2. 왕비

왕이 아니면서 높임 대상이 된 인물이 세 명이다.

[제108장]

수메서 드르시고 民望을 일우오리라 戎衣를 니피시니이다

病으로 讚흐시고 天心을 일우오리라 兵仗으로 도보시니이다

37) 『용비어천가』 제72장에서는 ‘독부(獨夫)’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제109장]

마리 病이 기퍼 山脊에 못 오르거늘 君子를 그리샤 金甌르 브수려 호시니
마리 사를 마자 馬廐에 드러오나눌 成宗을 되셔 九泉에 가려 하시니

제108장의 전절의 주체는 고려 태조의 비 유씨(柳氏)이며, 후절의 주체는 조선 태종의 비 원경왕후(元敬王后)이다. 또한 제109장의 전절의 주체는 주 문왕의 후비(后妃)이며, 후절의 주체는 조선 태종의 비 원경왕후다. 이들의 공통점은 왕비다. 왕은 아니지만 왕에 버금 가는 신분인 왕비를 높였다. 실제의 왕이 아닌 신분으로 높임 대상으로는 유일하다.

1·3. 조선의 후세왕

조선의 육조(六祖)가 새로운 나라를 세웠지만 이를 영원토록 이어갈 사람은 후세왕이다. 그러기에 후세왕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신분상 당연히 왕이기 때문에 높임 대상이 되었다. 다음 예가 후세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다.

[제125장]

千世 우회 미리 定호산 漢水北에 累仁開國호샤 卜年이 궁업스시니 聖神
이 니스샤도 敬天勤民호샤샤 더욱 구드시리이다 님금하 아르쇼셔 洛水예
山行 가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위에서 후세왕으로 설정된 낱말은 ‘聖神’과 ‘님금’이다.³⁸⁾ 이는 말 듣는 이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결정적으로 증거한다. 앞서 논증하였듯이 신분이 왕인 경우는 높임 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독자인 작품 제작 당시 왕인 세종을 포함하여 이

38) Peter H. Lee(1975), 앞의 책, p.166에서 ‘님금’을 세종과 후대의 왕을 함께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후에 왕이 될 후세왕을 높인 것이다.

1·4. 조선(朝鮮) 왕조

조선 왕조를 높인 것은 왕조에 대한 권위를 내세우려는 당시 집권층 의식의 반영이다. 제125장에서 ‘卜年’이 조선 왕조를 가리키는 것을 통해 조선 왕조를 높인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예에서 보면 조선 이외의 왕조는 높이지는 않았다.

[제83장]

君位를 보비라 홀씨 큰 命을 알외요리라 바롬 우희 金塔이 소스니
자호로 制度 | 날씨 仁政을 맛도리라 하늘 우희 金尺이 느리시니

위에서 전절의 고사와 후절의 고사의 유형은 같다. 곧 전절에서 고려 태조가 왕이 되기 전에 꿈속에서 금탑(金塔)이 솟은 것은 조선 태조에게 하늘에서 금척(金尺)이 내려온 것과 같다. ‘금탑’은 고려 왕조를 상징하고 ‘금척’은 조선 왕조를 상징한다. 그러나 ‘금탑’은 높이지 않았고 ‘금척’은 높였다. 적어도 고려 왕조를 낮추지는 않았지만 조선 왕조는 확실히 높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러한 높임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에 권위를 부여하고자 노력이 반영이다.

1·5. 하늘

상(商)나라에서는 점복을 통하여 왕은 모든 일을 집행하였다. 따라서 왕은 최고신인 제(帝)의 뜻을 지상에 실현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인간사회 질서는 신의 의지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주(周)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킨 것도 신의 섭리로 받아들였다. 주나라에서는 하늘[천

(天)]이 인격신으로서 모든 것의 주재자로 등장함에 따라 인간사회의 모든 현상을 하늘과 연결시켜 인식하였다. 하늘의 뜻을 받들고 그것을 지상에 실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천자(天子)이다. 덕이 있는 자는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부덕한 자는 하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이러한 천명(天命) 사상은 상나라를 대신하여 주나라가 종주국이 된 것을 논리적으로 정당화시켰으며 이후 왕조 교체의 명분이 되었다.³⁹⁾

작품 속에서는 ‘하늘’과 ‘天’으로 나오는 것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제8장]

太子를 하늘히 굴히샤 兄기 쁘디 일어시닐 聖孫을 내시니이다
 世子를 하늘히 굴히샤 帝命이 누리어시닐 聖子를 내시니이다

[제32장]

天爲建國하샤 天命을 누리오시니 亭上牌額을 세사를 마치시니
 天爲拯民하샤 天才를 누리오시니 藪中 담뱃를 스물살 마치시니

고대사회에서 왕은 신과 통치자의 권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왕의 명령과 권위는 인간 차원을 초월한 신의 권능에 의지하고 있으며, 오직 왕이 신의 뜻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조선은 문명사회이며 인간 보편성에 바탕을 둔 발전된 국가로 행정조직 체제를 정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왕명도 그 정당성의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왕명의 근원을 천명에 두고 여기에 지고(至高)의 절대성을 부여하고 있다. 조선은 건국의 정당성을 하늘에 근원하고 있다. 하늘은 인간에게 화복을 줄 수도 있다. 이는 하늘의 권능을 인간 생활의 결과에 대한 근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명은 절대적인 것이며 운명적인 것이다. 하늘은 삼라만상이 놓여진 상황에 맞게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는 천명 사상은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인간사회

39) 윤대현 외(1988), 「천하사상의 시원」, 『중국의 천하사상』, 민음사, pp.11~49.

에 실현해야만 할 당위성과 사명의식을 가졌다. 사명의식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존재로서 역할이다. 따라서 천명 사상은 인간사회의 화복과 윤리 등의 근원이며 하늘은 그 주재자라는 하늘 중심의 사상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⁴⁰⁾

이 사상은 조선초에 제작된 악장 「몽금척(夢金尺)」 「천감(天監)」 「자전지곡(紫殿之曲)」의 소재로 사용되었으며,⁴¹⁾ 또한 조선 시대에 나타난 문학 작품의 사상적 기반을 이루고 있다.

중국에서 천명 사상은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척도다. 중국의 창업주들이 천명을 받아 나라를 일으켰듯이, 조선 왕조 건국도 그와 같은 과정을 밟았다는 주장이다.⁴²⁾ 이것은 천명을 받아 왕조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중국과 대등하다는 의식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 해석은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의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보면, 높임 대상은 왕·왕비·조선의 후세왕·조선 왕조·하늘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주체로 나오는 단어를 현대어로 풀이할 때는 반드시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넣어야 한다. 다음은 제6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제125장을 예로 들어 현대어 풀이의 문제점을 살피기로 한다.

[현대어 풀이]

천 세(千世)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에, 여러 대를 물린 어진 임금 이 나라를 여[開]시어 왕조가 끝이 없으시니, 성신(聖神)이 이으시어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섭겨야 더욱 굳건할 것입니다.

임금이여, 아소서. 낙수(洛水)에 사냥을 가 있으면서 조상만 믿으시겠습니까?⁴³⁾

40) 손오규(1998), 『산수미학탐구』, 부산대학교출판부, pp.91~92.

41) 박찬수(1994), “용비에천가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대학원, p.35.

42) 진경환 외(1998), 『조선 시대의 문학』 1, 웅진, p.22.

4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2000), 『고등학교 국어(하)』, 교육부, p.134에서 인용.

위에서 보는 것처럼 높여야 할 곳은 높이지 않았고, 높이지 않아야 할 곳은 높였다. 예를 들어 ‘섬겨야’의 주체는 조선의 후세왕이므로 ‘섬기셔야’로 풀이해야 하며, ‘굳건할’의 주체는 조선 왕조이므로 ‘굳건하실’로 풀이해야 바르다. 또한 ‘믿으시겠습니까’는 ‘믿었습니까’로 풀이해야 한다.⁴⁴⁾

높임 대상과 높임 대상이 생략된 부분을 고려하여 제125장을 현대어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어 풀이]

(하늘이) 천 세(千世)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에, 여러 대를 물린 어진 임금[육조(六祖)]이 나라를 여[開]시어 (조선) 왕조가 끝이 없으시니, 성신(聖神)[조선의 후세왕]이 이으시어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섬기셔야 (조선 왕조가) 더욱 굳건하실 것입니다.

임금[조선의 후세왕]이여, 아소서. 낙수(洛水)에 사냥을 가 있으면서 조상만 믿었습니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4) ‘믿다’의 주체는 중국 하(夏)나라 태강(太康)이라는 왕이다. 일반적으로 왕은 높임 대상이지만 이 연구 pp.36~37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높이지 않기도 하였다. 나라를 망하게 한 주나라 주왕(紂王)이나 고려 우왕(禑王)을 높이지 않은 것처럼 하나라를 망하게 한 태강은 높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드시니잇가’가 아닌 ‘미드니잇가’의 형태로 쓴 것이다.

2. 객체높임의 대상

객체높임법에서 높임 대상이나 주체높임법에서 높임 대상은 같다. 말하는 이에 게 높임 대상이 주체이면 주체높임법이, 객체이면 객체높임법이 사용된다. 주체 높임법에서 왕·왕비·조선의 후세왕·조선 왕조·하늘 등이 높임 대상임을 밝혔다. 그러므로 이들이 객체로 나타나면 객체높임법이 쓰인다. 다만 높임 대상이 주체높임에서 언급한 인물이더라도 주체와 객체로 같이 나타날 때는 높임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말하는 이의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주체가 인물인 경우에 왕·왕비·조선의 후세왕이 아닌 경우에는 높이지 않았다. 위의 인물 유형에 속하지 않은 것이 제100장에 나오는 ‘용(龍)’이다.

[제1장]

海東 六龍이 느르샤 일마다 天福이시니 古聖이 同符하시니

[제100장]

물 우횃 龍이 江亭을 向흐스불니 天下 | 定홀 느지르샷다

집 우횃 龍이 御床을 向흐스불니 寶位 ㅅ실 느지르샷다

제1장에 나오는 ‘육룡(六龍)’은 함축적인 뜻이 있다.⁴⁵⁾ 곧 조선의 육조를 상징하기 때문에 높였지만 제100장에 나오는 ‘용(龍)’은 상징하는 뜻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높이지 않은 것이다.

서술어에 따라 주체와 객체의 인물을 살펴보면 <표2> 객체높임의 대상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45) 이운석(1997), 『용비어천가』 1, 술, p.25에서 인용.

『주역』에, “육룡(六龍)을 타고 하늘로 오른다”란 말이 있고, 또 “날으는 용이 하늘에 있으면 대인(大人)을 보기에 이롭다”란 대목이 있다. 용은 그 됃됨이가 신령스러운 변화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성인의 거취를 나타낸다. 우리 나라는 목조에서 태종까지 여섯 성인이 있었으므로 육룡이란 말을 빌려왔다.

<표 2> 객체높임의 대상46)

장	주체	객체	서술어	관계
5	백성	조선 익조	보습느니	주체 < 객체
7	블근새	주 무왕	뵈스븐니	주체 < 객체
10	백성	주 무왕	기드리스바	주체 < 객체
10	백성	주 무왕	브라스븐니	주체 < 객체
10	백성	조선 태조	기드리스바	주체 < 객체
10	백성	조선 태조	브라스븐니	주체 < 객체
11	백성	조선 태조	몰즈븐나	주체 < 객체
13	백성	주 무왕	슬븐리	주체 < 객체
22	신과(神婆)	한 고조	알외스븐니	주체 < 객체
22	신물(神物)	조선 태조	슬븐니	주체 < 객체
23	변인(邊人)	후당 태조	拜伏호스븐니	주체 < 객체
23	북인(北人)	조선 도조	稱頌호스븐니	주체 < 객체
25	군사(軍士)	송 태조	니피스븐니	주체 < 객체
25	백성	조선 태조	니피스븐니	주체 < 객체
26	당 태종의 형제들	당 태종	말이스븐들	주체 < 객체
26	어사대 관리	조선 환조	말이스븐들	주체 < 객체
27	돌궐인(突厥人)	당 태종	얼즈바	주체 < 객체
27	돌궐인(突厥人)	당 태종	꺄츠스바	주체 < 객체
27	후인(後人)	당 태종	보스븐니	주체 < 객체
29	제갈 량	촉한 소열제 비	뵈스븐니	주체 < 객체
29	명(明)의 조사(詔使)	조선 태조	일쿨즈븐니	주체 < 객체
36	삼적(三賊)	조선 태조	쫓줍거늘	주체 < 객체
38	서이(西夷) 사람들	상 탕왕	브라스븐니	주체 < 객체
38	동비(東鄙) 사람들	조선 태조	브라스븐니	주체 < 객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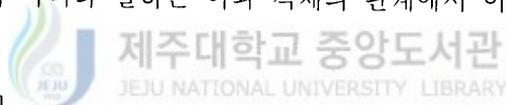
46) <표 2>에서 주체보다 객체가 높임 대상인 경우는 '주체<객체'로,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동등한 경우는 '주체=객체'로 표시하였다.

장	주체	객체	서술어	관계
41	요좌(遼左) 사람들	조선 태조	깃스보니	주체 < 객체
43	백성	조선 태조	아스볼까	주체 < 객체
44	도민(都民)	조선 태조	놀라스보니	주체 < 객체
47	돌궐인(突厥人)	당 태종	놀라스바니	주체 < 객체
47	도이(烏夷)	조선 태조	놀라스바니	주체 < 객체
51	찰목합(札木合)	원 태조	아습고	주체 < 객체
51	왜(倭)	조선 태조	아스보더	주체 < 객체
55	연인(燕人)	한 고조	向慕호스바	주체 < 객체
55	연인(燕人)	한 고조	돕스보니	주체 < 객체
55	북인(北人)	조선 태조	服事호스바	주체 < 객체
55	북인(北人)	조선 태조	츠습고	주체 < 객체
55	북인(北人)	조선 태조	좃즈보니	주체 < 객체
56	백성	당 태종	그리스보니	주체 < 객체
56	야인(野人)	조선 태조	우습느니	주체 < 객체
57	요사(遼使)	금 태조	과호스보니	주체 < 객체
57	백성	조선 태조	일우스보니	주체 < 객체
58	당 태종의 부하들	당 태종	말이습거늘	주체 < 객체
59	도족	당 태종	아스바	주체 < 객체
59	도족	당 태종	보습고	주체 < 객체
59	도족	조선 태조	아스바	주체 < 객체
59	도족	조선 태조	듣좁고	주체 < 객체
61	왕세충 군사들	당 태종	놀라스바늘	주체 < 객체
61	왜적	조선 태조	저쓰바늘	주체 < 객체
62	왜적	조선 태조	저쓰바니	주체 < 객체
63	여러 손님	조선 태조	받즈보니이다	주체 < 객체
64	천하(天下) 영웅들	금 태조	드스볼씨	주체 < 객체
64	세상(世上) 호걸들	조선 태조	나스볼씨	주체 < 객체
65	장사(長史)	당 태종	듣즈본	주체 < 객체

장	주체	객체	서술어	관계
65	휘하(麾下)	조선 태조	듣즈본	주체 < 객체
66	후국(侯國)	한 고조	오습더니	주체 < 객체
66	백성의 인심	조선 태조	몬좁더니	주체 < 객체
66	백성의 인심	조선 태조	굳즈본니	주체 < 객체
71	태평공주(太平公主)	당 현종	하스본니	주체 < 객체
71	이색(李穡)	명 태조	請흐스본니	주체 < 객체
72	국인(國人)	당 고조	습거니	주체 < 객체
72	한인(漢人)	조선 태조	습거니	주체 < 객체
74	간신(姦臣)	원 현종	하스바	주체 < 객체
75	돌궐인(突厥人)	당 태종	저스바	주체 < 객체
76	소식(蘇軾)	한 고조	습본니	주체 < 객체
78	일반 사람들	한 고조	아스보더	주체 < 객체
78	일반 사람들	조선 태조	스랑흐스본리	주체 < 객체
85	누구	하늘	고티스본리	주체 < 객체
85	누구	명 태조	달애스본리	주체 < 객체
86	일반 사람들	하늘	모르스본리	주체 < 객체
87	일반 사람들	조선 태조	습본리	주체 < 객체
91	당 태종	당 고조	이받즈뵤	주체 < 객체
91	당 고조의 총희들	당 태종	하스바	주체 < 객체
91	조선 태종	조선 태조	비스본싫	주체 = 객체
91	신하들	조선 태종	습쓰본	주체 < 객체
95	이밀(李密)	당 태종	마쯔비	주체 < 객체
95	명 나라 사신	조선 태종	죇스본니	주체 < 객체
97	광생(狂生)	한 고조	듣즈바	주체 < 객체
98	정도전(鄭道傳) 등	조선 태조	듣즈바	주체 < 객체
99	일반 사람들	조선 태종	오스본리	주체 < 객체
100	용(龍)	송 태조	向흐스본니	주체 < 객체
100	용(龍)	조선 태종	向흐스본니	주체 < 객체

장	주체	객체	서술어	관계
105	정고(丁固)	한 고조	救흐스바늘	주체 < 객체
105	길재(吉再)	조선 태종	거스스바늘	주체 < 객체
109	태종의 비	조선 태종	되셔	주체 < 객체
118	일반 사람들	조선 태조	술보리	주체 < 객체
121	신하들	조선의 후세왕	돕스보려	주체 < 객체
124	불교 추종자	조선의 후세왕	저히습거든	주체 < 객체

주체높임법에서 밝힌 높임 대상이 <표2>에서 주체로 등장되는 경우는 제91장과 제109장이다. 이 두 장을 제외한 객체높임법이 사용된 장의 주체는 높임 대상이 아니므로 객체만 높이는 형태를 취하였다. 말하는 이보다 객체가 높은 신분인 경우 객체를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 객체높임법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로 높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와 객체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제91장]

아바님 **이받즈뵤** 제 어마님 그리신 **눔므를** 左右 | 하스바 아바님 **쨌흐**
시니

아바님 **뵤스뵤쌌** 제 어마님 여희신 **눔므를** 左右 | 슬쌌바 아바님 일크
르시니

전절에서 ‘이받즈뵤’은 객체를 높이는 형태다. 주체는 당 태종이며 객체는 당 고조다. 이 둘은 주체높임법에서 밝힌 것처럼 다 높임 대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버지[당 고조]는 높이고, 주체인 아들[당 태종]은 높이지 않았다. 이는 당 태종보다 당 고조를 더 높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절의 ‘뵤스뵤쌌’은 주체와 객체를 높인 높임의 겹침이 일어나고 있다. 곧 주체인 아들[조선 태종]과 객체인 아버지[조선 태조]를 둘 다 높이는 형태이다. 이는 조선 건국 과정에 참여한 태조와 태종은 높임 횟수는 차이가 있지만 둘은 같은 주인공으로 인식한 결과다.

3. 상대높임의 대상

말 듣는 이가 후세왕인 것은 <표 3>의 종결어미를 보면 알 수 있다.

<표 3> 종결어미의 분포 유형⁴⁷⁾

유형	종결형태	횟수	나타나는 장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이-'의 노출형	니이다	36	8, 14, 17, 34, 35, 43, 44, 46, 50, 63, 67, 79, 80, 81, 84, 96, 98, 103, 108, 111, 122
	리이다	1	125
	니잇가	1	125
	리잇가	26	15, 17, 21, 26, 31, 48, 51, 52, 53, 54, 62, 69, 79, 93
	니잇고	6	28, 47, 72
	리잇고	1	110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이-'의 생략형	니	140	1, 2, 3, 4, 5, 6, 7, 9, 10, 11, 12, 13, 18, 19, 20, 22, 23, 24, 25, 27, 29, 30, 32, 33, 36, 37, 38, 39, 40, 41, 42, 44, 45, 49, 55, 56, 57, 58, 59, 60, 61, 64, 65, 66, 68, 70, 71, 73, 75, 76, 77, 82, 83, 86, 88, 89, 90, 91, 92, 94, 95, 97, 101, 102, 104, 105, 106, 107, 109, 114, 115, 117, 119, 120, 123, 124
	리	16	16, 74, 78, 85, 86, 87, 99, 112, 113, 116, 118
기타	ㄴ가	2	88, 89
	ㄹ까	1	44
	샷다	2	100
	쇼셔	16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47) 허웅(1977)은 제87장의 전절의 끝 '-며'와 제121장의 끝 '-니'를 연결어미로 보았다. 그러므로 제1장·제87장·제121장은 문장 종결이 1번씩 이루어지고, 제125장은 문장 종결이 3번 이루어진다. 그 나머지는 문장 종결은 전절과 후절로 각각 2번씩 이루어진다. 이 논문에서 종결형태는 이에 따라 분석하였다.

상대높임법과 관련된 논제 중에서 종결어미로 쓰인 ‘~니’와 ‘~리’인 경우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다. 하나는 ‘~니’와 ‘~리’ 뒤에 ‘-이-’의 결부체가 생략되었다고 보는 경우다. 또 하나는 ‘~니’와 ‘~리’ 자체를 종결어미로 보는 경우다.⁴⁸⁾ 주체높임법에서 본 것처럼 조선의 후세왕은 높임 대상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후세왕은 『용비어천가』의 독자이기 때문에 높였다. 작품은 전체 125장으로 나누어졌지만 각각 별개의 장이 아니다. 후자 주장처럼 ‘~니’와 ‘~리’ 자체로 문장이 종결된다면 반말체가 된다.⁴⁹⁾ 그러면 어떤 부분은 반말체로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아주 높이는 형태로 된 통일성이 없는 문학 작품이 된다. 화제 지향형으로 되어있는 제1장에서 제109장 사이에서도 생략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함께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니’와 ‘~리’ 다음에 ‘-이-’의 결부체가 생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니’와 ‘~리’ 뒤에 ‘-이-’의 결부체가 생략된 것으로 본다면, 248번 종결어미 중에서 높임의 형태는 모두 243번이다. 곧 ‘-이-’의 노출형이 71번 · ‘-이-’의 생략형이 156번 · 높임명령형 ‘-쇼셔’가 16번이다. 그러므로 『용비어천가』의 독자는 조선의 후세왕임을 알 수 있다.

말하는 이는 누구를 대상으로 『용비어천가』를 말하고 있는가? 이 작품을 제작한 의도는 여러 가지다. 그러나 다음 글을 통해 살펴보면 주요한 의도는 후사(後嗣) 교화(教化)에 있었다.

(가) 여기에는 목조께서 나라의 터를 닦으신 때부터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의 모든 사적 가운데 특별히 훌륭한 일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왕업을 이루는 일의 어려움을 모두 갖추어 서술하였습니다. 모든 옛일은 바르게 고쳤으며 노래는 나랏말을 썼습니다. 또 시를 지었는데 이 시로써 그 노래의 뜻을 풀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그려내고, 해와 달을 본뜬 것이 비록 그 형용을 그대로 하지는 못했으나 문자로 적고 음악에 올려 빛나는

48) 정병욱(1984), 앞의 책, pp.167~175에서 (1) ‘~니’는 ‘~니이다’의 생략이라는 견해 - 마에마 교오사꾸(前間恭作), 허웅, 김상역 (2) ‘~니’는 연결(連結)의 성질을 띤 어미라는 견해 - 방종현, 김형규, 김사엽, Peter H. Lee로 정리했다. 정병욱은 음절수 조절 원칙에 따라 ‘이’의 결부체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 (1)의 견지를 취하였다.

49)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2000), 『문법』, 교육부, p.218.

업적은 조금쯤 드러내기는 했습니다. 혹 살피시어 받아들여 드디어 널리 퍼는 것을 허락하시면 이 노래가 아들에게 전하고 다시 손자에게 전해져 나라를 이루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되고, 고을에서 사용하고 또 나라에서 사용하면 영원토록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⁵⁰⁾

(나) 아, 옛 성인은 시로써 가르치고, 그것을 성률(聲律)에 화합하게 하여 나라 안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천하의 교화를 이루셨습니다. 지금 천년의 뒤에도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감동하여 떨치고 일어나게 하는데, 하물며 당대의 일에 있어서야 어떻겠습니까?

뒤에 오시는 임금께서 이것을 보시면, 오늘날 흉한 바의 근본을 미루어 보시고, 계속 뒤를 이어가면서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일어나, 나라를 지키는 법을 스스로 감히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오늘날 평안한 바의 근원을 미루어 보고, 죽을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더욱 일어나, 애모의 정성을 스스로 그만두지 못할 것입니다.⁵¹⁾

(다) 小臣이 書筵에 모시고 있을 때 동궁저하께서 용비어천가를 내시어 신하들로 하여금 11訣을 정하여 관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옥이 생각하옵건대, 제왕의 基業은 누적되길 백년이어도 부족하여, 훼손될라 치면 하루라도 남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시경(大雅 文王之什)에는 “네 선조 文王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 덕을 이어 닦으라”고 하였으며, 서경(康王之誥; 즉 顧命의 일부)에는 “우리 고조의 寡命(=顧命)을 훼손시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용비어천가가 조종의 누대에 걸친 간난을 서술하여 자손들이 꼭 지켜야 할 규계로 삼은 것은, 실로 뒷 성군들이 반드시 귀감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옛 사적을 인용하여 당대 일을 증거 삼고, 되풀이하여 노래하고 찬영함으로써, 편차가 대단히 많고 번잡하여 진실로 그 요강을 한데 묶어 제시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신은 이 때문에 근심하여 깊이 생각하여 고찰하여 보았습니다. 시는 모두 325장(125장의 잘못된 듯함)인데 이제 7조를 대강으로 하여 분속시키고자 합니다. 즉, 中上行은 “先世積累之久”(선대가 基業을 쌓음이 오래됨)로 11장을

50) 이윤석 옮김(1997), 앞의 책, p.23에서 인용.

51) 이윤석 옮김(1997), 『용비어천가』 2, 술, p.426에서 인용.

분속시키고, 中心은 “開國”으로 2장을 분속시키며, 中下行은 “後聖持守之難”(후대의 성왕들이 덕업을 보존키 어려움)으로 16장을 분속시키고, 左一行은 “盛德”으로 34장을 분속시키며, 제2행은 “大功”으로 34장을 분속시키고, 右一行은 “大命”으로 26장을 분속시키며, 제2행은 “民心”으로 2장을 분속시킵니다. 그리고 각각에 歷代를 표시하며, 事類를 주하고 제하여 바치고자 합니다. 삼가 생각컨대, 성상께옵서 자애로이 열람하여 주신 뒤 동궁에 하사하시어, 좌안 우권에 두고 조석으로 보고 반성토록 하여, 우리 조선이 개국하게 된 경사가 실은 조종의 적덕이 오래된 데서 연유한 것이고, 성덕이 있으셨기에 대공을 세우셨으며, 천명을 얻어서 민심을 얻었던 것임을 알게 하고,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나날이 삼가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하여 근로하여 백성을 격려하여 조금이라도 감히 소홀히 하는 일이 없게 하신다면, 소신이 아뢰 “後聖持守之道”가 어찌 이보다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⁵²⁾

(가)는 「용비어천가를 올리는箋」으로 권제·정인지·안지가 쓴 글이며, (나)는 「용비어천가 발」로 최항(崔恒)이 쓴 글이다. 그리고 (다)는 『용비어천도(龍飛御天圖)』 서문으로 양성지(梁誠之)가 쓴 글이다. 위에 인용한 것에서 보면, 『용비어천가』가 후세왕과 백성들을 교화하는 역할과 역사적 자료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³⁾

『용비어천가』의 내용을 크게 나누면, 제1장에서 제109장까지는 후세왕과 백성들에게 합당한 내용이지만 제110장에서 제125장까지는 후세왕에게 말하는 형식이다.⁵⁴⁾ 전자는 전지적 시점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평서형 종결어미 혹은 설의형 종결어미로 끝내고 있다. 이는 진위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화제 지향형이다. 그러나 후자는 말 듣는 이를 염두에 둔 표현 방식이다. 한결같이 높임명령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사건의 진위 문제가 아닌 간곡한 표현으로

52) 심경호(1992), 앞의 책, p.412에서 재인용.

53) 이어령(1985), 『고전을 읽는 법』, p.239.

54) Peter H. Lee(1975), 앞의 책, p.139에서 (1)제1장~제109장은 이성계와 이방원에 관계되는 사시(史詩)의 본체이며 (2)제110장~제125장은 결말부로 세종과 사왕(嗣王)에 대한 규계(規戒)의 장으로 나누어 두 부분의 차이점을 표현 방식으로 파악하였다.

한 청자 지향형이다. 이러한 점을 인정한다면 『용비어천가』는 동궁, 곧 후세왕의 교화(敎化)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독자인 후세왕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IV. 결 론

문학 작품에는 다양한 삶의 모습이 들어있으므로 문학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고전 문학 작품의 어학적인 고찰은 그 자체로 의의(意義)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 연구의 바탕을 이룬다. 연구자는 높임법을 통해 『용비어천가』 전체에 나타난 높임법 양상을 살펴보았다.

Ⅱ장에서 높임 형태소에 따라 높임 대상을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Ⅲ장에서는 이들을 분류하고 해석하였다. 주체높임법을 통해 살펴본 바로는 높임 대상은 대부분 왕이다. 중국 인물로 30명·고려 인물로 4명·조선 인물로 6명인데, 이들은 추존된 왕들을 포함하여 전부 왕의 신분이다. 조선 왕업을 열었던 조선 육조(六祖)를 중심으로 한 고사(故事)를 통하여 여론 환기와 왕조의 영원한 번영을 구가하려는 목적에서 이 작품은 제작되었다.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왕들이 높임 대상임을 밝히는 준거는 천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하늘의 높임 대상으로 삼은 것에서 알 수 있다. 하늘의 명을 받았다는 역사 의식은 조선 왕조 자체를 높임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새로운 왕조에 권위를 부여하고자 한 노력의 반영이다. 또한 왕이 아니면서 높임 대상이 된 인물로는 주 문왕의 후비(后妃)·고려 태조의 비인 유씨(柳氏)·조선 태종의 비인 원경왕후(元敬王后)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왕비다. 또한 조선 왕조를 이어갈 인물인 후세왕을 높인 것은 미래의 왕이기 때문에 높임 대상이 되었다.

주체높임법의 대상 중에 조선의 후세왕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말하는 이가 말 듣는 이를 높이는 것이 상대높임법이다. 종결어미 ‘~니’와 ‘~리’로 끝나는 경우 뒤에 ‘-이-’의 결부체가 생략되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후사(後嗣) 교화

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주된 독자는 조선의 후세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 듣는 이, 곧 독자를 높이기 위하여 높임의 형태소 '-이-'가 사용되었다고 보아진다.

객체높임법을 통해서는 주체와 객체가 다른 인물인 경우 높임 순서를 알 수 있다. 조선의 고사에서 주체가 조선 태종이고 객체가 조선 태조였을 때 주체와 객체를 둘 다 높였다. 이는 조선 건국 과정에 참여한 태조와 태종을 동등한 높임 대상으로 인식한 결과다. 윤리적인 면에서 보면 부자(父子)간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높이고 아들은 높이지 않을 법하다. 그런데도 높임법의 겹침이 나타나는 것은 조선 태조와 조선 태종을 대등한 인물로 인식한 결과다.

이 연구는 고등학생들에게 높임법과 관련지어 『용비어천가』를 가르치면서 생긴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담화의 관점에서 말하는 이·작품 내용·말 듣는 이를 명확히 하여 작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높임법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 있는 것처럼 『용비어천가』만이 아니라 같은 시대의 또 다른 문헌에도 나타난 높임법도 연구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것은 후일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참 고 문 헌

<자료>

- 『용비어천가』 영인본, 대제학(1973)
이윤석 역(1997), 『용비어천가』 1·2, 솔.
서울대학교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2000), 『고등학교 국어(하)』, 교육부.

<단행본>

- 강신항(1994),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고영근(1987),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구인환(1997), 『소설론』, 삼지원.
김성철·김기협 역(1997), 『역사로 읽는 용비어천가』, 들녘.
김종훈(1984), 『국어경어법연구』, 집문당.
김홍규(1988),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남기심·고영근(2000),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백영정병욱선생 10주기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1992),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백영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1982), 『백영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1990),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2000), 『문법』, 교육부.

- 손오규(1998), 『산수미학탐구』, 부산대학교출판부.
- 윤내현 외(1988), 『중국의 천하사상』, 민음사.
- 이극찬(1991), 『정치학』, 법문사.
- 이기석(1975), 『용비어천가』, 홍신문화사.
- 이상익 외(1994),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집문당.
- 이승녕(1978), 『국어학연구』, 형설출판사.
- 이승녕(1979), 『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
- 이어령(1985), 『고전을 읽는 법』, 갑인출판사.
- 이재인 외(1997), 『현대 소설의 이해』, 문학사상사.
- 이춘식(1991), 『중국사서설』, 교보문고.
- 장덕순 외(1987),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 정병욱(1984),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 조규익(1990), 『선초악장문학연구』, 숭실대학교출판부.
- 조동일(1986),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 진경환 외(1998), 『조선 시대의 문학』 1, 웅진.
- 한영우(1984), 『조선전기사학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허웅(1977), 『용비어천가』, 정음사.
- 허웅(1983), 『우리 옛말본』, 샘.
- 허웅(1972), 『중세 국어 연구』, 정음사.
- 황패강 편(1982),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 Peter H. Lee(1975), 『용비어천가의 비평적 해석』, 김성언 역(1998), 태학사.

<논문>

- 고영화(1997), “용비어천가 텍스트의 구성 원리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구경자(1990), “용비어천가 주해의 정음표기 어휘 연구”, 석사학위논문,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경조(1983), “『용비어천가』에 나타난 형태소 분포에 관한 통계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찬수(1994), “용비어천가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유광희(1997), “<용비어천가> 파격장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낙복(1977), “우리말 높임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Abstract>

A Study on the Honorific in 'Young-bi-a-chon-ga'
(Songs of flying Dragons)

Im, Byung-Gun

Korea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Choe, Kyu-Il

Literary works keep order of language. 'Young-bi-a-chon-ga'(Songs of flying Dragons) also observes this order of the middle-aged korean language. Therefore, we can understand the thoughts of the political powers in those days by studying the honorific in "Songs of Flying Drag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classify the honorific method. According to the grammar of the middle-aged korean language, there are three kinds of honorific; the subject-honorific, the object-honorific, and the listener-honorific.

The subject-honorific is used when the speaker honorificates the predicative word appearing in conversation.

The object-honorific is used when the speaker honorificates the person and thing that are represented.

The listener-honorific is used when the speaker honorificates the listener.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1.

In terms of the subject-honorific, the persons or things that get a honorific are kings, queens, future kings, Chosun dynasty and the heaven. Among kings there are 30 in china, 4 in Korea dynasty and 6 in Chosun dynasty. This is why this work was written to make the people know the justification of the foundation of Chosun dynasty and to establish the everlasting prosperity of the dynasty. The reason heaven also get a honorific is to explain to the people that Chosun dynasty had been founded by heaven's will. In addition, Chosun dynasty has a honorific in order to give the new dynasty powerful authority, too.

By means of the object-honorific, we can understand the order of honorific in the case that subject and object are not same. For example, both Tae-jo (태조) and Tae-jong(태종) get a same honorific because they are considered as persons with same position.

In the respect of the listener-honorific, the morpheme of honorific is omitted because the persons who use a honorific are kings later.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honorific correctly in studying classical literary works. In conclusion this study helps the high school students appreciate the classical literature correctly.